문화매일

제 1344호 2023년 2월3일 금요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국제물산업박람회 참가중소 물기업 모집. 참가비 3백만 원 지원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2023년 경기도 물기업 홍보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고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가 경기도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 WATER KOREA(국제물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 물기업의 전시회 참가 부스비와 홍보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2023 WATER KOREA'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물산업박람회로 킨텍스에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박람회에 '경기도 기업관'을 마련해 도내 환경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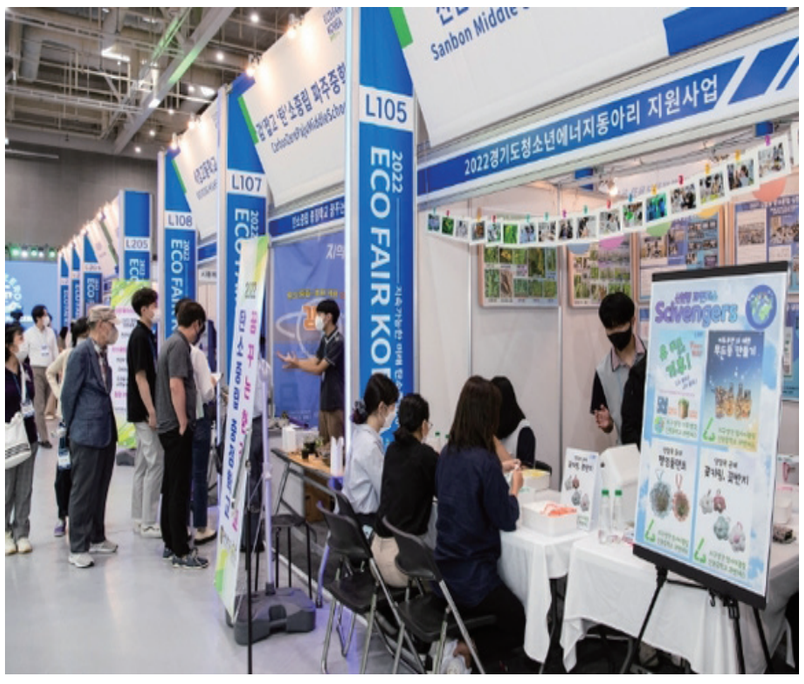
지원 대상은 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으로, 도는 18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참가 부스비와 홍보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수출상담회'에도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참가 부스비 지원항목은 ▲부스 신청비 ▲부스 디자인비 ▲부대시설비 등이고, 홍보물 제작비는 2023 WATER KOREA 참가를 위해 제작한 ▲책자·리플렛 등 인쇄물 ▲전시 모형물 등이다.

사업 신청은 워터코리아 누리집에서 '경기도 기업관'에 참가 신청을 확정한 후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내 기업참여에서 해당 공고문을 통해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는 WATER KOREA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6.7~6.9),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8.30~9.1)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참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전남도, 귀농어귀촌 유치에 735억

청년층 농업 창업 촉진·안정적 정착위해 11개 핵심사업 추진

전라남도는 청년층 농업 창업 촉진과,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어귀촌 분야 11개 핵심사업에 735억 원을 들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남형 귀농어귀촌 유치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점 추진할 귀농어귀촌 분야 핵심 사업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농촌(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 등 11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농촌 이주 희망 도시민의 임시 주거공간 마련과 농촌 정보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에 49억 원을 들여 현장에서 귀농귀촌 유치활동과 함께 정착 기틀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예비(초보) 귀농어귀촌인의 농어촌 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고, 마을 주민 스스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2억 원을 지원한다.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구입 등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자금은 7천 500만 원까지 연 1.5%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매년 귀농인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다.

또 신규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 전남도 귀농어귀촌인에게 우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으로 팀당 3천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다.

이밖에 도시민 귀농어귀촌인 유입 캠페인.어울림 마을 조성.어울림 대회 등 귀농어귀촌 유치활동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어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4만여 명의 귀농어귀촌인이 전남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정책을 통해 예비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수도권 청년독과점 해법 제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구미 금오공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수도권의 청년독과점을 지방중심 인재양성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 기업들은 인재가 없어 고사 직전이지만, 서울로 향한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상실감과 패배감에 젖어있다"며 "지역에 대학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혁신생태계를 만들어 지방대학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은 이름만 빼고 싹 바꾼다는 강한 의지로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역에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부터 기업이 필요인력을 제시하면 공장 준공단계에서는 맞춤인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인력양성, 규제완화, 정주여건 확보 등 3가지 정책을 동시에 지원하는'굿스타트팀'을 만들 계획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등학교 졸업자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학력인플레 현상을 지적하면서 '고졸청년 성공시대 3대 인프라'구축과 외국인 우수 인재 초청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철우 도지사가 제시한 3대 인프라는 △고졸 취업자 학위 취득 무상지원 △취업2년 후 대졸 수준 임금보장 △군복무 후 상여금 300% 지원이다.

한편, 전날인 31일 경북도는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시대를 위한 산업인재양성 체계 구축의 시작을 알렸다.

업무협약은 도와 구미시 그리고 금오공대, 구미전자공고, 금오공고 등 대학과 고등학교까지 참여했고 반도체와 방위산업 기업인 에이테크솔루션, SK실트론, 원익큐엔씨, KEC, 엘씨텍, LIG넥스원, 한화시스템이 함께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인재의 채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대학과 고등학교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노력을 진행하며 지방정부는 교육혁신과 인재들의 지역정착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장용호 SK실트론 대표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재확보이다"라면서 "경북은 어느 지방정부보다 기업의 성공과 지역의 성공을 위해 인재양성과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곳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국가만이 글로벌 승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방시대의 교육혁명은 지역에 필요한 인재는 지방이 키우고 대학,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들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교육혁신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충남도, 영농현장서 스마트 강소농 육성 다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일 서산시 청년다육농원에서 전문가와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강소농 육성을 위한 충남 강소농지원단 영농현장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본격적인 영농현장 컨설팅을 앞두고 데이터 활용과 기술·경영 역량을 보유한 스마트 강소농 육성을 위한 다짐과 함께 영농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농가가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비용 절감, 품질 향상, 고객 확보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위원 상담도 진행했다.

또 스마트 강소농 컨설팅 추진 방향 등을 주제로 연찬회를 진행해 의견을 나누고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강소농지원단은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 역량 제고와 품목별 기술 향상,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역량 지원에 중점을 두고 9명의 전문가가 현장 지원 활동을 펴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 운영하고 있다.

현장 컨설팅이 필요한 농업인은 충남 강소농지원단으로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정근/기자

‘집단지도체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3년 첫 회기 대응 방향 논의

첫 임시회 현안 파악 및 여야정협의체 제안 위한 민생정책 발굴 방침도 확정

‘집단지도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23년도 첫 회기 돌입에 대비, 쟁점 안건 파악 등 회기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남경순(수원1) 부의장과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파주1) 및 상임위원장단은 지난 2일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개회 대응 회의를 열고, 올해 첫 임시회 쟁점 의안 및 의원별 5분 자유발언 안건, 2023년도 의회 전체 운영 일정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여야정협의체 정책간담회’ 결과도 공유, 2024년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민생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달부터 매월 2회 개최키로 한 여야정협의체 실무회의에 당내 수렴된 민생정책 아이디어를 공식 제안하고, 현실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2024년 총선에 대비해 전국 최대 의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이끌고자 교섭단체 내 ‘총선 승리 대응 TF’ 구성을 추진키로 하고, 이번 회기 중 세부적 구성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2023년도 첫 회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내 민생정책 과제도 성공적으로 발굴해 도민들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교섭단체로 그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화성시의회, 우정.장안 농축수산인 신년 간담회 참석

화성시의회는 1일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우정·장안 농축수산인 신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의장, 이계철 의원, 송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영 기술지원과장, 오석만 농업정책과장, 이병상 축산과장을 비롯한 우정·장안 농축수산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신년 간담회로써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술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등 각 집행부 부서장들이 참석하여, 2023년 농업 및 축산 관련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농축수산인들의 고충 및 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이계철 의원은 “남양호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농어촌 공사 배정 예산 확인, 집행부 관련 부서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경희 의장은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의 가공식품 확대 등 농민들의 정책적 고민도 함께 해달라”며, “화성시의회에서도 지역 농축수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양시현/기자

평택시의회, 2023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는 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2023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의원 및 지역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개원 32년 이래 첫 대규모 언론 간담회로 제9대 평택시의회의 지난 7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한편 시의회가 올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유승영 의장은 이날 직접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지난해 주요 의정 성과, 회기 운영 결과 및 2023년 의회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한 데 이어 시정 및 의정 현안에 대한 언론인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는 지난해 주요 의정 성과로 △이해와 협조를 통한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마무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공정한 인사 운영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정책지원관 임용과 정책지원팀 신설을 통한 전문성 강화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 등을 내세웠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5회 60일간의 회기일정 동안 의결안건 139건, 의원발의 조례 31건, 시정질문 1건, 7분 자유발언 8건 및 3일간 24개소의 현장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은 총 396건으로 2018년 제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대비 85건(21.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2023년 의회 운영 방향으로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활동 강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지원 △정책 의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에는 시민 공모, 소통 강화, 역량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새로운 사업과 제도를 추진해 내실 있는 의회 운영으로 더욱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시민 공모 분야에서는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소통 강화 분야로 △SNS를 활용한 의정 홍보 강화 △의회 방문 견학 프로그램 추진, 역량 강화 분야로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 교육 △평택시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영 의장은 “2023년에는 시의회의 정책 연구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만을 바라보며 더욱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2023년 새해에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전남도의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 토론회 개최

한숙경 전남도의원, “전남만의 특성화된 교육으로 직업계고등학교 경쟁력을 강화 해야‘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숙경 의원은 1일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와 학교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면서 의회 차원에서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성화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장, 교육청 관계공무원, 교육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성화고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는 한숙경 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남 직업계고 지역일자리 연계 방안 마련(유규봉), 전남 특성화고 학과개편 방안(김한석), 전남 직업교육 및 지역산업 인재 육성(김찬중),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및 예산지원 확대방안(김홍렬), 전남 직업교육 정책 및 체제 개편 발전 방안(신병건)의견을 제시했다.

특성화고 학교 관계자들은 취업률 향상을 위한 학과개편, 지역 전문인력 확보, 산학연계를 위한 기업과의 협력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숙경 대표의원은 “전남만의 특성화된 교육으로 직업계고등학교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과 재구조화 작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과들이 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된다면 특성화고 진학률과 취업률은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만큼 이를 토대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는 미래 전남교육 발전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로 토론회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해명/기자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 동부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소외”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은 제337회 제1차 임시회에서 경북 동부권 지역의 통합신공항 접근성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교통망 구축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북 동부권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공항으로 구축될 공항경제권에 포항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부권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경북도가 포항을 비롯한 경주, 영덕, 울진, 청송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벨기에 리에주 공항,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공항, 중국 청두 공항처럼 물류에 특화된 공항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경북도의 계획에서는 경북 동부권 도민과 산업을 통합신공항과 이어줄 교통망 계획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원은 “당장 포항국가산단과 영일만항 물류와 연계된 교통계획을 세워달라”며 “경북 제1도시인 포항이 소외되어 있는데, 다른 경북 동부권 시군에는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실제 포항에는 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영일만 산업단지,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블루밸리산업단지,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음에도, 이번 신공항의 교통망 구축 과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손 의원은 “통합신공항의 성공이 경북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포항을 비롯한 동부권 시군이 소외되지 않고 공항경제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철도망 등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 신속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홍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천구, '찾아가는 동 새해인사'로 현장소통 펼쳐

2월 1일부터 7일까지 10개 동 방문, 주요시설 및 민원현장 찾아 주민 의견 수렴

금천구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동 네방네 주민을 찾아가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동 새해인사회'를 개최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2023년 찾아가는 동 새해인사회'는 기존 동주민센터 강당에 모여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생활 속에 들어가 지역의 현안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성훈 구청장이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등 각 동의 주요시설을 방문해 주민과 함께하면서 건의사항 등 주민 의견을 듣는다.

2월 1일 가산동을 시작으로 7일 독산2동까지 새해인사회 기간 동안 오전 1개 동, 오후 1개 동을 돌아볼 예정이다. 경로당·지역아동센터·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민들과 자연스러운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주민대표와의 오찬 간담회, 동주민센터 직원과의 차담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가산동은 G밸리 소재 후원업체, 독산1동은 우시장, 독산3동은 모두의 학교 등을 방문해 지역의 주요 건의사항을 유심히 들어보고, 일반주택이 밀집해 있는 독산2동, 시흥1동·5동은 지역사회 후원에 참여하는 나눔가게,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등 돌봄 이웃 가정을 두루 살펴보며 주민과 소통하는 일정으로 구성했다.

금천구는 찾아가는 동 새해인사회에서 접수한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동 새해인사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최만식/기자

'2023 달라지는 관악생활' 집 앞에 공원이, 수변 산책로가 생긴다!

관악구가 공원, 수변 산책로 등 자연친화적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간다.

구는 올해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관악구의 랜드마크 '관악산'을 배경으로 도심 속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푸른 자연과 함께 문화생활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구 전역에 걸친 관악산 자락의 근린공원 24개소를 제1권역 미성·난곡·난향동, 제2권역 대학·삼성동, 제3권역 낙성대·남현동으로 구분하여 특화한다. 지난해에는 낙성대 지구에 낙성대숲속공원을, 올해에는 난곡·양지·하늘 등 3개 지구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관악구 '산(山)세권' 만들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또 신림선 '관악산' 역 바로 앞 위치한 구 관악산휴게소가 문화와 휴식공간 갖춘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한다. 구는 '관악산 입구 으뜸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관악산입구 앞에 대형 열린 광장을 조성하고 3층 규모의 북카페 등 문화시설을 조성,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서울시 대표 공원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관악산 입구 으뜸공원'과 인접한 '관악아트홀'을 연결하는 '관악아트홀 예술산책길'도 오는 11월까지 준공해 관악산을 방문하는 문화예술 활동도 향유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관악산역 5분 거리에 위치한 관악아트홀은 공연장과 전시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해 9월 새롭게 개관했다. 지난 1월 27일에는 세계 최고의 소년합창단인 '빈 소년합창단'의 내한공연을 개최하는 등 관악구 문화예술 거점으로써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수변감성도시의 모습도 갖춰진다. 구는 별빛내린천(도림천)을 중심으로 2호선 신림역 인근 봉림교와 신림교 구간에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을,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관악산역 서원역 인근에 '별빛 내린천 특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수변공간에서 주민들이 산책하며 힐링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한편 구는 미복원된 서울대 정문 앞 ~ 동방 1교 구간도 오는 2024년 6월까지 복원을 완료하고, 별빛내린천 전 구간을 생태하천의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관악구 '수(水)세권' 육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민 삶터 가까이에 공원과 하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며 "앞으로 관악구를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가득한 서울시 대표 자연친화도시, 수변감성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내 생애설계 준비는 몇 점?`…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 개발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 중장년 시기에 생애설계 준비 수준을 점검할 필요성 역시 증가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83.6세로 점차 늘어나면서, 중장년 시기에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인생 후반기를 설계하는 준비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백세시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비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중반기에 중장년 스스로가 현재 자신의 생애설계 준비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고 설계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준비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를 개발했다.

기존의 노후준비 관련 지표는 대부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은퇴/노후 준비 여부나 경제적 준비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이번에 개발한 중장년 생애설계 준비지표는 40대를 포함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생애 전 영역에서 준비 정도를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치 중심의 객관적 문항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준비 정도를 진단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별 맞춤 진단과 대비가 가능하다.

이번에 개발한 지표는 중장년이 자신의 생애설계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측정 대상은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이고 2개 영역, 7개 항목,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문항 별 1~5점 척도로 점수화할 수 있으며, 전체 응답에는 약 5~7분 정도 소요된다.

지표 구성은 크게 생애이해와 생애영역 설계관리로 구분되고, 생애이해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 항목, 생애영역 설계관리는 생애역할, 일(경제활동), 재무, 여가활동, 신체적·정신적 건강 설계관리의 항목으로 분류된다.

생애설계준비지표를 이용한 준비도 측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실효성 있는 중장년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은 생애설계준비지표의 항목별 점수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중장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생애설계준비도를 바탕으로 경력 개발 및 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수 있다.

재단은 올해 서울시 중장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생애설계준비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 연구를 진행한다.

심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장년 정책 국제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 개발 보고서는 50+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정책연구팀장은 "이번 연구는 현시대에 필요한 생애설계준비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를 새롭게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지표 개발이 중장년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기초자료이자 실효성 높은 중장년 지원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학교복합시설 업무협약(MOU) 체결 및 현장방문 계획

경북도교육청은 2월 3일(금) 오늘, 포항고 후관동 소강당에서 교육부총리, 국회의원 김병욱, 경상북도지사(행정부지사), 경상북도교육감, 포항시장, 포항교육장, 울릉군수, 울릉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학교 복합시설 시업 및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번에 체결되는 업무협약 및 현장방문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사회 소멸, 학교통·폐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에 따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으로서 학교 복합시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오늘 진행될 세부 행사 계획은 09시 30분 부총리 도착후, 공항 귀빈실에서 부총리 및 교육감 면담이 진행되며, 경북과학고로 이동해 경북과학고 이전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후, 포항고로 이동해 MOU행사를 진행한 후 오찬 및 환송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청송교육지원청,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수), 청송교육지원청 및 청송도서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다누리폭력예방교육센터」 김소정 강사는 '공직사회의 필수요소 성평등의식'이라는 주제로 공직사회에 새롭게 요구되는 자질인 성인지 감수성과 공공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김소정 강사는 최근 문제되는 2차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강조하며, 뿌리깊게 고착화된 성관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호경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은 "오늘 교육으로 우리 직원들이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직구성원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환경부, 친환경 보일러로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해요

친환경 보일러 교체시 질소산화물 87% 저감, 연간 연료비 최대 44만 원 절약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그간 109만 대의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방비 포함 총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52만 대 교체를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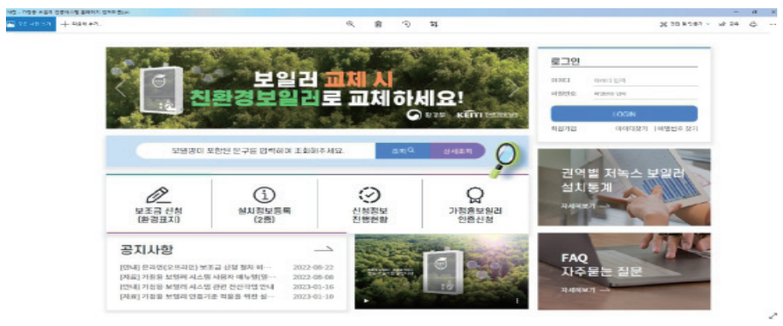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연간 약 87%, 일산화탄소는 70.5%가 저감되며, 이산화탄소는 19%가 저감된다.

열효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23.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친환경 보일러 37.3만 대 교체를 지원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024톤, 일산화탄소 1,540톤에 달했고, 이산화탄소는 약 20만톤 감축,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뿐만 아니라 권역외 지역에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수원시·경인지방우정청,수원시 창업·중소기업에'수출 간소화 지원'계속한다

수출절차 간소화 협약 체결하고,협력 약속

수원시와 경인지방우정청이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제품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경인지방우청청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소제조업체 수출제품 국제운송 지원을 위한 수출절차 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20년 3월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승원 경인지방우정청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제조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2020년 3월,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 운송지원'을 시작했다.

원스톱 수출 운송지원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수원시는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제조업 국외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운송 비용(업체당 250만원) 등을 지원한다. 1회당 200kg 이하를 선적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114개 업체에 원스톱 수출 운송을 지원했고, 누적 수출액은 110만 달러(약 13억 4000만원)에 이른다. 2022년에는 27개 업체의 수출 운송(30만 달러)을 지원했다.

수원시는 '2023년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제조기업을 2월 1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관내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승원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수원시에서 시작된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은 다른 지자체로 전파되면 중소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출 지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수원시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은 수출 제품의 운송 시간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경제특례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시는 기업 유치·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혜영/기자

광주시, 탄소중립 실천 다짐 선언식 개최

광주시는 지난 1일 '2023년 광주시 탄소중립 실천의 해'를 맞이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공무원 탄소중립 실천 다짐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400여명의 광주시 공직자들이 참여해 가정과 직장 내에서 배출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20개 광주시 공무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과제'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환경정책과에서 기후탄소과로 조직을 개편하고 1천여 시민과 함께 '광주시 2050 탄소중립 실천다짐 선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

또한, '공공기관 릴레이 소등행사', '새해맞이 탄소중립 캠페인', '친환경 명절 보내기 캠페인', '탄소포인트제 1만가구 가입 추진' 등 실천 약속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

방 시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광주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행정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두고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오늘 실천 선언문을 기억하면서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1천700여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안양시, 2022년 출생아 수 증가했다…전년 대비 166명↑

안양시 출생아 수가 2021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시는 2022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66명이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뚜렷한 가운데 2022년 안양시 출생아 수는 주민등록 기준 3443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아 수 3277명보다 무려 166명이 증가했다.

2022년 출생아 수 3443명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만안구는 1376명으로 전년 대비 35명이 증가했으며, 동안구는 2067명으로 전년 대비 131명이 증가했다.

시는 최근 만안구 안양6동, 동안구 비산1·2동, 호계3동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주택단지의 인구 유입뿐 아니라 다양한 출산 및 청년 정책 등이 출생아 증가를 견인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2021년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가운데 예절교육관 야외정원 작은 결혼식장 무료 개방, 출산축하용품 190여종 40만원까지 제공, 42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및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 운영 등 인구·출산 정책을 추진하며 인구 증가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도 계속된다.

또 최대 2억원 대출 추천 및 연 4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지난해 92명이 지원받아 안양시에 정착했다. 올해는 지난달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청년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출산지원금 확대 등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출산지원금 2배 인상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인구절벽 속에 안양시 2022년 출생아 수 증가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도시 성장동력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인구수를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 58만명 조성하고 청년층을 30%까지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안산시, 서울예대와 맞손… 안산 특화 문화콘텐츠 만든다

안산시가 관내 서울예술대학교(총장 유태균)와 함께 안산만의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시는 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 및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등을 포함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서울예술대학교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창조적인 문화예술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문화예술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및 지원 ▲문화예술 공동 사업 추진 및 정보 교류 ▲협약기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해 개교 60주년을 맞이했으며, 우리나라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데 기여하는 등 수 많은 예술가들과 창작물을 배출해왔다.

유태균 서울예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상호 발전 시너지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K-콘텐츠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시대에 걸출한 예술인을 대거 배출한 세계적 대학 서울예술대학교와 함께 시 발전을 위한 여러사업들을 보다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전진선 양평군수, 2023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성료

전진선 양평군수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 양평읍을 시작으로 진행한 '2023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지난 달 31일 청운면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2023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은 퇴직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에 대한 표창과 양평 어울림공동체 지원사업 단계상향 인증서 시상을 시작으로 2023 양평군 군정계획 설명, 군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12개 읍·면에서 총 922명의 군민이 참여해 2023년 양평군 군정계획과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별 이슈와 건의사항 등 향후 계획과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 마을안길 도로 분쟁 해결, 마을 도로 확장, 하수 처리, 상하수도 신설, 도시가스 설치, 마을회관 보수, 산책로 및 자전거길 조성 등 총 450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지역별 주요의견은 ▲양서면 분면 추진 ▲양수리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양평읍 인구 증가 대비 도로 및 인프라 확충 ▲옥천면 한화콘도 영업중단에 따른 군차원 계획 ▲용문면 추읍산 관광 자원 개발 ▲의병발원지로서 지평면 관심 요청 ▲양동면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등이 제시됐다.

이날 자리에는 주요 국·소장 및 부서장이 함께 자리해 군민들의 제안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답변으로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며 신뢰도를 높여 참여한 군민들의 만족도 높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행사 개최를 통해 생생한 군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군민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상황이 안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가까이에서 행정의 벽을 낮추고 군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만남의 자리 개최

지역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건설현장 관계자들과의 만남의 자리' 개최

평택시는 지난달 31일 관내 민간 건설현장 관계자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평택시협의회 등 지역 건설관련 단체대표와의 정보교류를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중앙건설㈜, ㈜한화건설, 디엘이앤씨㈜ 등 관내 9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평택시 전문건설협회 협의회장, 고용서비스협회 평택지부장, 각 건설장비별 대표 등 4개 건설 관련 단체들이 참석해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했다.

박석순 주택과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지역건설업계 또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성산업㈜ 모곡동 438-1 현장 관계자는 "평택시 내에서 수급 가능한 자재, 인력, 장비를 우선 적용하는 등 지역 업체 이용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며, 디엘이앤씨㈜ 장당동 71-13일원 현장 관계자는 "시의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 업체 이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131개 건설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현재 민간 건설현장 115개소와 공공발주 건설현장 35개소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규 건설현장 관계자와 지역건설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신규 착공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초일류도시 인천’, 소비자 선정 최고 정책브랜드‘대상’수상

중앙일보·포브스코리아 주최, ‘2023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민선8기 인천시 시정목표인 ‘초일류도시 인천’이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의 정책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인천광역시는 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JTBC가 후원하는 '2023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초일류도시 인천’브랜드로 정책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인천의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이 국제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래 두 번째 ‘대상’ 수상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산업전반에 걸쳐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인정받는 상품 및 기업의 브랜드를 평가해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발전과 국가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대상은 지난해부터 시장정보 등을 활용해 사전 기초조사를 진행해 후보브랜드를 선정했고, 소비자 리서치를 진행 소비자 직접투표 결과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선정됐다.

정책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초일류도시 인천(The Great City Incheon)’은 국내·외 일류도시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도시를 가리킨다.

‘초일류도시 인천’은 ‘5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초스마트시티를 기초로 문화, 역사, 환경, 교육 등의 가치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행복 도시’를 지향한다.

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민선8기 시정목표로 정하고 ‘균형도시, 세계도시, 소통도시,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시정목표로 삼아 인천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하면서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만 바라보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경기도의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끌어 갈 봉사단체를 모집합니다”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1차 공모사업 참여단체 모집개시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모집한다.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은 2017년 시작해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1차 지원사업은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끄는 경기도 자원봉사’라는 타이틀 아래 ▲사회보듬 ▲사회안전 ▲생명사랑 ▲재능나눔 ▲자율주제 등 5개 분야로 모집을 진행한다. 260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총지원 예산은 15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비해 지원 단체를 30개가량 늘렸다. 또 물가상승을 감안해 지원예산도 단체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은 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안성시, 반도체산업 성장을 위한 지역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2월2일, 안성시 . 국립한경대학교 . 두원공과대학교 .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는 안성시 반도체산업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내용은 지역산업의 환경변화 및 산업수요에 공동 대응하고, 기관 간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인력양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미래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협약기관 보유 인프라(인력, 시설, 장비) 공유, ▲경쟁력 강화 관련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에는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대학교 이원희 총장, 두원공과대학교 임해규 총장,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서명했으며,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20만 안성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및 인력양성센터 구축 포럼을 개최했고, 기업과 학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국회의원을 초빙하여 특별강연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시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의 기틀이 마련됐으며, 향후 안성시 지역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오산시 대원동, 2023 계묘년 대원동민 화합 척사대회 개최

오산시 대원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원동 주민자치회 등 7개 단체 주관으로 지난 31일 원동 근린공원에서 ‘2023 계묘년 대원동민 화합 척사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 해의 풍요로움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고 대원동 주민, 단체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3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대원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 먹거리를 나누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김인환 대원동 주민자치회장은 “척사대회를 통해 주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모천우 대원동장은 “많은 주민들이 척사대회에 참석하여 윷놀이와 먹거리를 즐겨 주셔서 감사하다”며 “2023 계묘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임병택 시흥시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앞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1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시흥지부장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임 시장은 이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농협과 업무협력을 약속하고, 농협 시흥시청출장소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창구를 통해 기부금을 기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인당 연5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그 기금을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쓰는 제도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다.

한편, 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홍보 및 답례품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지역화폐 시루, 관광시설 입장권,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상생에 이바지하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임광현 경기도의원, 김동연지사와 경기도의료원 가평 유치 논의

경기도의회 임광현(국민의힘·가평) 의원이 경기도의료원 가평 유치에 적극 나섰다.

임광현 도의원은 지난 1월 31일 서태원 가평군수, 강민숙 가평군의회 부의장, 배영식 단장(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 추진단) 등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예방하고 가평군 지역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임광현 도의원은 “의료원은 사업 타당성과 예산문제에 앞서 개인 삶의 존엄과 기본권으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이며, 신종 감염병 등 재난적위기 상황에서의 미흡한 대응, 주민건강.생활돌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가평군에 경기도의료원 설치를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가평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우수한 체육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지 홍보를 위해, 2025년 경기도체육대회 및 2026년 생활체육 대축전 유치에도 서태원 가평군수와 가평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임광현 도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가평유치로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으로 가평군 도시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가족 과반 이상 학교 방역관리 신뢰

학교 방역 현황 인식 및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방역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학교 방역 현황 인식 및 만족도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월 27일부터 1월 6일까지 도내 초·중·고 학생 15,347명, 교직원 15,467명, 학부모 52,674명, 총 83,4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교 안전성 인식’에서는 학생 68.8%, 교직원 67.4%, 학부모 64.9%가 ‘학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해 학교 방역 신뢰도가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받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교육’은 학생 74.7%, 교직원 89.4%, 학부모 86.9% 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대응의 효과성 인식’에서 ▲신속항원검사도구 무료 지원과 선제검사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89.5%, 교직원 86.3%, 학부모 91.9%이며,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학생 88.4%, 교직원 91.4%, 학부모 90.4%가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전환될 시 학생 55.3%, 교직원 49.1%, 학부모 65.4%는 ‘가급적이면 일상적으로 착용하겠다’고 응답했고, 학생 19.7%, 교직원 28.4%, 학부모 20.4%는 ‘수업 등 필요할 때만 착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설문 결과를 통해 학생 75%, 교직원 77.5%, 학부모 85.8%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 착용할 생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들은 ‘향후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학생·학부모 대상 보건교육 강화 ▲방역물품 구입 지원 ▲학교 방역인력 배치 ▲학교 소독 ▲급식환경 관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성정현 과장은 “설문조사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도내 학교에 안내됐다”라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학교 현장에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용인특례시] 원삼SK 일반산업단지 부지내 청동기시대추정 고인돌군 발견

고인돌 군 주변 조림목(백합,잣나무)보상협의 없이 무단 벌목 갈등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원삼면 독성리 일원 약 448만평방미터(약 135만평)규모의 조성공사가 착공식없이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사절차를 살펴보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표본,시굴,정밀) 등이 있으며, 지표조사란 땅 위에 드러난 문화재 또는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하지 않은 채 조사해 확인하는 첫단계이며, 지표조사와 달리 땅을 파고 들어가 문화재의 원형을 파악하는 표본조사(대상면적의 2%이내), 시굴조사(대상면적의 10%이내)그리고 정밀 발굴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독성리 일원 5곳 유물산포지에 시굴조사 의견으로서 대상면적770,264㎡ 고려-삼국-조선 시기 특히 독성리 산114-1번지 일원 11,381㎡에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추정 고인돌군이 확인되어 시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독성리 산114-1번지의 경우 토지보상은 마무리되었지만, 지상권 즉 산림조성(조림목)에 의한 인공적으로 식재된 나무의 경우는 일정한 보상 협의에 의하여 벌목 또는 이전되어야 하지만 보상단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던 차에 무단으로 조림목(백합나무 90주 수령20년 수고 14미터, 직경 15~20cm, 잣나무 25주)을 뿌리만 남긴채 전체 면적 3,400여평중 약 350평정도가 무단 벌목되어 진채 방치되어 있다.

조림목 주인인 H씨(65세)에 의하여 제지되어 전체를 벌목을 하지 못한채 용인동부경찰서에 재물손괴로 고소하여 진술서에 전체를 벌목하지 않고 공교롭게도 문화재 지표조사에 표기된 면적만 벌목한 것은 다분히 문화재시굴조사를 위한 사전에 의도적으로 벌목을 한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경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여년 키운 조림목을 단돈 4,500여원에 이전하라는 식이라 협의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런일이 생겼다면서 이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착공식도 전체 토지보상협의도 법을 지키지 않고 무작위로 진행되는 막무가내식 기반공사로서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을 지키지 않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항변했다.

또한, SK에코플랜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목시공기술사 J 프로에 의하면 자신들은 지난해 9월 30일 벌목당시 그곳이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라 확인된 시굴지역인지도 몰랐으며 산지(토지)보상이 완료되어 벌목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일어난 단순한 실수이다.

조림목 주인인 H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등 아는바가 없으며, 이후 조림목 주인과 같이 벌목된 나무 밑둥에 푯말을 박아 자연목외

조림목 백합나무 90주 잣나무 25주 벌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용인시청 문화재 담당 확인결과 시굴조사에 대한 용인일반산업단지로부터 문화재 시굴조사 요청서는 현재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용인일반산업단지측과 시굴조사 의견으로 대상면적770,264㎡ 고려-삼국-조선 시기등 특히 독성리 산114-1번지 일원 11,381㎡에독성리 산114-1번지 조림목(백합,잣나무)보상 협의에 귀추가 주목되며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문화재 시굴조사 일정에 새로운 변수로서 원삼반도체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완공 시점이 늦어질 전망이다.

조혜영/기자

고양특례시,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 '탄력'

고양-양재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강남 30분대 통행 가능해진다

고양특례시는 '고양-양재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됐다고 2일 전했다. 민자적격성 통과에 따라 고양시의 역점 시책인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추진 역시 탄력 받을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2023년 2월 1일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에 '고양-양재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여부를 문의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조사 통과됐으며 2023년 하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예정임을 확인했다.

적격성 통과에 따라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제안자에게 추진여부를 통보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7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습 정체구간인 자유로~강변북로~양재IC 구간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되면 고양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통행이 가능해진다.

자유로는 고양시민의 서울방면 출·퇴근 등 일(日) 교통량이 약20만대로 전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 중 하나이다.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지하고속도로 건설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월 4일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더불어 시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고양~양재 지하고속도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 재구조화 용역' 및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이 서로 연계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해당 구간의 종점부 연장 등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양재 고속도로의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를 환영한다."며 "고양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접근으로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교통서비스를 향상하고 고양시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시흥시, K-골든코스트 '하하호호, 시화호 힐링투어'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신규 지정

시흥시는 시흥에코센터의 K-골든코스트 '하하호호, 시화호 힐링투어' 프로그램을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2월 31일에 신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지정제도로,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자격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지되며,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발간하는 우수 환경교육 지정 프로그램 모음집에 소개돼 전국 200여 곳의 교육(지원)청과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등 500여 곳에 배포된다.

시는 '에너지 보물섬 초록배곧 여행'으로 지난 2017년 최초 지정받은 후, 이번까지 총 4개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신규 지정된 K-골든코스트 '하하호호, 시화호 힐링투어'는 사람책과 시화호 일대를 걸으며,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서 시화호의 어제를 알아보고, 황새바위길과 생명의 나무에서 생물의 다양성과 삶터인 시화호의 오늘을 느끼며, 시화호 수변로에서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시화호의 미래를 그려보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시화호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과 시로 표현하는 디카시 작품을 완성해 참여자들의 생태 감수성을 배양하고,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시화호의 물길과 시간을 작품으로 표현해 유의미한 기록을 재배열하는 등 시화호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의 방향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앞서 지난해 운영된 '하하호호, 시화호 힐링투어' 디카시 작품은 시흥에코센터에 방문해 감상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배포중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통해 K-골든코스트 시화호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모두를 위한 내일을 이끄는 평생 환경교육도시 시흥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광주시, 취약계층 난방비 등 빈틈없는 연중 지원

광주시는 최근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지원 및 관리에 들어간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부터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임산부 등 3천431가구에게 5억2천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기초수급자의 52.7%만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발표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 5천270여 가구에게 가구별 최대 59만2천원까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해 오던 월동난방비 25만원에 도비 2억8천700만원을 확보해 1천437가구에 추가 20만원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으로 총 6억9천8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솔루션 회의'를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 난방용품 지원, 긴급지원 대상자 월동난방비지원, 집수리사업 등 지역내 취약계층 4천499가구에게 2억6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취약 저소득계층을 위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에너지 사용 진단·컨설팅을 실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동절기 뿐만 아니라 환절기와 하절기 등 연중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맛’과 ‘위생’ 동시에 잡을 포항시 시민 식객단 위촉

제4기 시민 식객단 위촉식, 지역 내 음식점 대상으로 맛·친절도·청결도 등 평가

포항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4기 시민 식객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원학 환경국장이 시민 식객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 김미란 교수가 ‘외식산업과 소비문화트랜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4기 시민 식객단은 월 2회 이상 포항 시내 일반음식점, 카페, 제과점을 대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맛 △친절도 △청결도 △위생모 및 위생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매달 영업주에게 통보해 자발적으로 위생 및 친절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고, 우수 위생업소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맛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3회 이상 ‘매우 맛있음’으로 평가받을 시 ‘시민 식객단이 선정한 포항 맛집’으로 선정하는 등 포항시만의 특색있는 맛집을 발굴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민 식객단 활동으로 외식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음식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포항의 음식 홍보 및 맛집 발굴에도 기여하는 등 포항이 관광객이 찾는 음식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이제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관광, 문화까지 연결해 포항시만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시민 식객단으로 책임감을 갖고 포항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모이소 경상북도’서비스 개시

경상북도는 1일부터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모이소 경상북도'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이소 경상북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주체인 도민들이 본인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해 신속·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하게 됐다.

구축된 서비스 주요내용은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공무원)·앱(대민) 개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경북도민증 발급 △비대면 보조금 신청·지급 △대국민 시범 관광 서비스 △공공플랫폼 연계 활용이다.

경북도는 금년부터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농어민 수당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처리되는 농어민수당 신청건수는 약 23만 건 정도로 그동안 농어민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공무원들은 서류 검토를 통해 적격자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모이소 경상북도'앱에서 클릭 한번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으며 담당 공무원도 서류 검토·보관·검증에 걸리던 업무량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고 신청현황도 플랫폼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업무처리 혁신은 AI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묶음서비스를 활용해 '모이소 경상북도'앱에서 도민증 발급, 직불금 정보 등 필요한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도민과 공무원 모두 행정기관 방문과 서류검토에 걸리던 업무시간을 다른 일과 정책 개발 등에 할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작년부터 경북도청 신도시(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에 시행중인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도 '모이소 경상북도'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전담 돌봄사가 아픈 아이들을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는 진료 돌봄 서비스로 금년부터는 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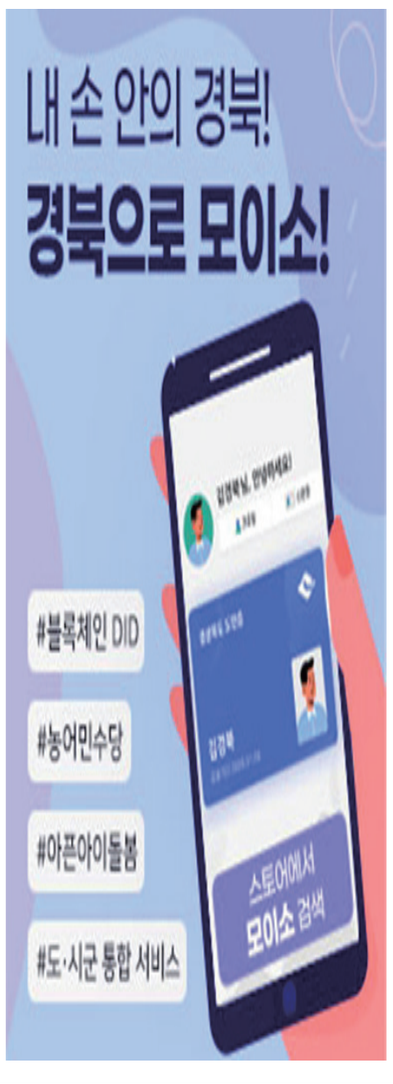
이 외에도 문경시와 협업하여 4월부터 전국에서 문경시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방문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모이소 경상북도' 앱 서비스 가입 후 관광지 방문을 QR로 인증하면 모바일 지역농산물 할인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관광지 방문객 데이터를 수집하여 향후 더 많은 관광객이 경북도를 방문할 수 있는 관광정책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모이소 경상북도' 앱 서비스는 이철우 도지사의 지방시대 철학이 반영된 업무혁신 사례로, AI 기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공무원은 업무시간에 행정전문가로 거듭나 정책발굴에 매진하고, 도민은 그 동안 흩어져 있던 행정·정책을 손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의 주인인 도민들이 본인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서·시군 협업을 통해 행정업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희망2023 나눔 캠페인'사랑의 온도 103도 달성!

경기 침체에도 불구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 실천으로 최종 온도 103도 달성

2월 1일 11시, 구 중앙파출소 앞 사랑의 온도탑에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수학 회장 및 임직원, 기부자,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3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갖고 대구시민과 함께한 62일간의 행복한 동행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집계 결과, 목표액 100억 원을 초과해 103억 원을 모금함으로써 사랑의 온도 103도를 달성했다.

이번 모금은 연일 이어지는 한파와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한 어려운 모금 여건 때문에,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목표액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위기 속에 강한 대구시민들의 놀라운 나눔 DNA를 증명해 주었다.

올해도 지역 기업의 나눔 참여가 사랑의 온도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6억 5천만 원을 기부

해 대구 1호 기부자로 등록됐으며, 한국가스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공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의 기부를 시작으로 에스엘 서봉재단이 지난해와 같이 10억 원의 기부를 했고 DGB 금융그룹, 화성산업(주), 삼익THK(주) 등 기업이 억 대의 통 큰 기부를 이어왔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인 기부 역시 끊임없이 이어졌다. 1급 장애가 있는 자녀의 고장 난 휠체어 수리를 시작으로 평리동에서 휠체어 판매 수리점을 운영하게 된 신동욱 대표는 10년째 장애인을 위한 기부를 이어왔다.

그리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인 대구중앙청과와 대양청과는 작년 화재로 큰 손실을 보았음에도 매년 하던 기부를 갑자기 끊을 경우 힘든 이웃을 위한 온정이 식을까 우려하며 기부에 참여했다.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온정의 힘으로 1월 30일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고, 31일 최종 온도 103도를 달성하며 ‘희망2023 나눔캠페인’을 마무리하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을 통해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성원 덕분이다"며, “나눔 정신을 실천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 반부패 청렴·안전 서약식 개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30일(월) 사장, 전무이사를 비롯한 부서장 9명,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안전 서약식을 개최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추진된 이번 서약식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의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와 안전 대구 건설 다짐을 되새겨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부패·청렴 서약서에는 △공사 임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청렴 공직사회 실현 솔선수범, 금품·향응 수수와 알선·청탁 근절,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임직원 행동 강령과 이행충돌방지법 의무 준수, △친절 공정 업무 수행 등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 서약서에는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 최우선, △안전보건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 시행,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발굴 등 무재해·무사고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 노력을 담았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서약식 후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시행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공기업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하며,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반부패 청렴 실천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이와 함께 안전 대구 건설을 위한 안전 역량 또한 강화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류석/대기자

경주시, 경북도 주관 2022년 하반기 재정 적극집행‘우수’선정

소비·투자부문에서 하반기 목표액 대비 108% 집행률 달성

경주시가 경북도에서 주관한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적극집행 종합평가에서 도내 시부 2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는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적극집행 목표 달성 실적(20%),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실적(80%)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방재정 적극집행은 공공부문의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시는 내수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소비·투자부문에서 하반기 목표액 대비 108% 집행률을 달성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긴급입찰, 계약심사기간 단축 등 적극집행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사업 집행 독려를 위해 1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공정률 및 집행현황을 매달 집중 점검한데 따른 결과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역량을 총 동원한 결과”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조기에 재해복구를 완료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공공부문 재정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력 하겠다” 라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영덕군보건소,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마스크 의무 유지 안내

영덕군보건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군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주의점을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에 이어, 지난달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로 부분 해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2단계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조정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이뤄지게 된다.

이에 영덕군보건소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이나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는 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영덕군보건소에서 알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 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의 실내 등이다.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의 실내 환경일 경우,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김재희 영덕군보건소장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지만 상황에 따라 개인 각자가 방역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감염예방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전염도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영양산나물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경북도 '23년 최우수 축제 선정

'23~24년 한국방문의해, 관광객 유치 경상북도 지정축제 13개 선정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23년~'24년 한국방문의 해 추진에 따라 경북 관광객 유치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를 발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경상북도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의 역사와 지역자원의 품격을 높이고, 전통성과 대표성이 있는 "2023년 경상북도 지정축제"를 선정·발표했다.

올해 도 지정축제는 시군에서 추진할 85개 축제를 대상으로 시군별 1개의 우수한 축제를 추천 받아 축제 콘텐츠와 조직역량·운영, 지역 사회 기여, 자체관리시스템, 안전관리체계 등 13개 평가항목에 대해 축제 추진 계획과 시군 발표 평가로 이뤄졌으며 특히, 축제콘텐츠 및 마케팅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결과 영양산나물축제와 고령대가야체험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됐으며 우수축제에는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영천 보현산별빛축제, 영덕대게축제, 성주 생명문화&참외축제가 선정됐고 유망축제에는 경주 벚꽃축제, 경산 갓바위소원성취축제, 의성 슈퍼푸드마늘축제, 청도 반시축제, 예천 삼강주막나루터축제, 울진 죽변항수산물축제, 울릉 오징어 축제 등 7개 축제가 선정됐다.

이번에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영양 산나물축제"는 영양의 청정 먹거리 산나물을 테마로, 산나물 채취, 산나물 먹거리 등 건강체험 프로그램과 영양군 별을 보며 트래킹, 산골오지 체험, 산골 생활을 축제로 발전시키고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는 3회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으며, 대가야의 꿈이라는 주제로, 역사적인 전통자원을 활용하여 축제 콘텐츠로 육성하고, 주민·지역문화예술인 연계 프로그램,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눈에 띄었다.

아울러 경북도는 올해 새롭게 작지만 색깔 있는 미색(微色)축제를 5개 선정했다. 시군에서 독특한 주제와 아이디어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8개 축제를 추천받아 축제 주제 및 콘텐츠, 지역주민참여 등 추진계획과 발표를 통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미색축제에는 포항 양덕동(장량동과 양덕동) 주민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주민들이 만드는 축제인 "리코(RECO)마켓축제" 가 선정됐으며, 리코는 자원순환(Recycle)과 생태친환경(Eco)의 합성어로 포항지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양덕동 주민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환경보호, 자원순환, 녹색소비를 테마로하는 친환경축제이다.

"구미라면축제"는 구미지역 산업자원과 연계하여 라면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시민과 관광객이 추억을 나누는 이색축제이며, "울릉도 눈축제"는 눈이 많은 나리분지 일원에서 눈을 콘텐츠로 눈썰매장, 눈조각, 눈길 트래킹 등 체험과 볼거리 등 겨울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울릉관광 비수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외에도 영주 무섬외나무다리축제, 성주 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등이 선정됐으며 도는 이번에 선정된 미색축제에 대하여 각각 2천만원의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철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올해는 K-컬쳐와 함께하는 매력적인 관광 국가를 비전으로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첫해로서, 경북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도 지정축제와 미색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축제장을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 개편

청송군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회가 많은 점을 고려해 모바일 서비스 중심의 군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을 개편하고 1월 31일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개편은 군민과의 소통 강화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으며, 산소카페 청송정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주요 관광자원을 전면에 배치하여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메인화면은 '주요소식', '열린군수실', 'SNS 및 소식지', '관심분야별 주요정보', '문화관광' 영역 등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유튜브 등 SNS 콘텐츠를 상단에 배치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화면 좌우의 미사용 영역까지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콘텐츠가 한눈에 쉽게 들어오고, 기존 대비 이미지 및 폰트 크기를 확대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기존 하위 메뉴로 있던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등의 직속기관 홈페이지를 별도의 독립된 홈페이지로 구성해 직속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디자인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가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우리마을 계획은 우리 스스로 세운다

의성군은 오는 2월 15일까지 주민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계획하는 마을계획단 워크숍을 운영한다.

이번 워크숍은 행복마을자치사업 2단계에 참여하는 14개 마을에 직접 들어가 마을별로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군은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을자치 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들로 양성된 퍼실리테이터를 마을별로 4명씩 배치했다.

마을에서는 주민 15명 이상으로 마을계획단을 구성해 워크숍에 참여하며 ▲1회차에는 마을의 장.단점을 파악해 의제를 도출하고 ▲2회차에는 도출된 의제를 토대로 숙의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3회차에는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마을계획 수립 과정을 마무리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마을계획 수립을 통해 마을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을 찾아냄과 동시에 마을이 가야할 길은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다면 마을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며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행복의성지원센터 유정규 센터장은 "마을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주민들의 합의가 중요하고, 마을계획을 실천하는 주체는 마을사람이기 때문에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대구 북구, 2023년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대구 북구청은 청소년들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원사업'참여자를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원사업'(약칭 청바지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한 북구만의 자체 복지사업으로 청소년이 관내 독거노인, 거동불편 단독세대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과 생활불편사항 해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법정 복지대상자 세대 중 만 15~24세(1999년~2008년생) 청소년으로서 주민등록상 북구 거주자이어야 하며, 동별 4명씩 총 92명을 선발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활동한다.

참여자는 월 5일, 1일 3시간 근무하게 되며, 활동비는 월 21만원 정도 지급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바지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럭키 칠곡, '찰칵찰칵 칠곡' SNS 관광후기 이벤트 진행

칠곡군은 '매일매일 칠곡소풍' 관광 브랜드를 홍보하고 오감만족 문화관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찰칵찰칵 칠곡' SNS 관광후기 이벤트를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에서 즐기는 근거리 로컬여행 선호와 개인 SNS를 통해 여행을 공유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칠곡 여행 일상을 기록한 생생한 후기를 공유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자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

칠곡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칠곡군 SNS 채널을 팔로우하고 관광지 방문 인증 사진이나 숏폼 영상을 관광 후기와 함께 올리면 된다.

우수 후기를 매월 10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 연말에 Best Lucky 7을 선발해 숙박권 등 럭키박스를 제공해 칠곡을 다시 방문하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SNS 이벤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칠곡군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후기는 칠곡군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소개되며 추후 관광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광삼/기자

경북교육청, 2023년 학교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추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 지키기에 총력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학교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유치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 계획은 △미세먼지 관리기반 조성 △미세먼지 대응 교육활동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미세먼지 대응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미세먼지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청 내 미세먼지 실무대응반 및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현장 상황을 점검·조치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둘째, 미세먼지 대응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학기 초 모든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계기교육을 실시하며, 미세먼지 관련 위해성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34,353대를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보급하고, 전열교환 환기장치를 37교 926교실에 신규 설치하며,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12개 학교에 옥외 체육관을 확충한다. 아울러 등·하교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심 학생 맞이 공간(실외 부스)을 16교에 조성한다.

넷째, 미세먼지 대응 상황 점검과 모니터링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학교 자체 자율 점검과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연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일선 학교에서는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및 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통한 안내 등 발령 상황에 따른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교육청, 2023. 글로벌 경제금융교육 추진 계획 발표

경제금융교육 기반 조성, 교육자료 개발 및 역량 강화 등에 총 2억 원 투입

대구시교육청은 실물경제 중심의 글로벌 경제금융교육을 통한 세계 시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글로벌 경제금융교육'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2023. 글로벌 경제금융교육은 ▲경제금융교육 기반 조성, ▲경제금융교육 자료 개발, ▲경제금융교육 역량 강화 등 3가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경제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별 1개 학년 이상, 연간 5차시 이상으로 ▲경제금융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각 학교 실정에 맞게 교과별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자유학기 활동 등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운영한다.

그리고, 경제금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초·중·고 60교를 대상으로 교당 100만 원씩 지원하여 ▲경제금융학생 동아리를 운영하고, ▲경제금융교육 중점학교 3교(학교급별 1교)를 지정하고 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하여 새로운 경제금융교육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교원 경제금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적용을 위해 ▲경제금융교육 교원연구회 3팀(학교급별 1팀)에 각 300만 원씩 지원하는 등 경제금융교육 기반 조성에 힘쓴다.

초·중·고 교원 중심 TF팀과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이 공동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제금융교육 표준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향후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수정·보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금융교육 교원연구회와 연계하여 ▲프로젝트 중심 경제금융교육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교원 연수 자료로 활용하고, 경제금융교육 운영 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경제금융교육 사례 공모전을 운영하는 등 경제금융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DI,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교사 대상 연수 및 ▲학생 대상 배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의 경제금융 역량 및 해결력 등을 강화한다. 또한, 학부모 대상으로 화요일의 인문학·학부모 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경제금융교육 배움 특강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역할 및 경제금융인식 제고에 나선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경제금융역량을 키워 실생활 속에서 건전한 금융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 소양 함양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지역자활센터, 2022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품질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영주시는 영주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에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부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영주지역자활센터에는 포상금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최우수기관 현판이 지급됐다.

품질평가는 제공기관의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3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90점 이상 A등급 중 상위 10%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므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현재, 영주시는 2개의 제공기관(다사랑재가복지센터, 영주지역자활센터)에서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우 복지정책과 과장은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기관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연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일본 도쿄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기반 다져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주요 관계자, 중의원 의원 등 내각·입법부 핵심 인사와 면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다양한 교섭활동 전개하며 일본 내 유치 지지 기반 공고히 해

부산시는 이성권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한 교섭단이 지난 1월 30부터 31일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활동을 위한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도쿄를 찾아, 일본 내 세계박람회 주무 부처인 외무성, 경제산업성 및 일본 중의원 핵심인사와 면담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쿄에 도착한 1월 30일에는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소속인 야마시타 타카시(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야마시타 의원은 이 부시장의 지지 요청에 "소관 부처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을 통해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부산시의 노력에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라고 화답했다.

다음날인 31일에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 및 청년회 대표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부시장은 한일관계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재일본교포 청년들에게 "민간외교관으로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크나큰 계기가 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많은 지지와 응원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청년회 대표들은 일본에서 한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려는 일본의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어서, 세계박람회 주무부처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을 찾아, 2025오사카·간사이세계박람회 유치 과정과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전략을 듣고, 대한민국 부산이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관한 부산시의 노력과 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위해 열린 BTS의 콘서트를 언급하면서, 부산시의 유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유치 과정에 대한 이 부시장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라면서, "고위층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2025오사카·간사이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 개최는 자국 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5오사카·간사이세계박람회에 이어 2030세계박람회도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양국 간 지속적인 번영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부시장은 일본유신회 소속 중의원인 오쿠시타 타케미츠, 야마모토 고세이, 모리시마 타다시 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구인 오사카, 후쿠오카와 부산시 간의 우호 협력 강화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부시장의 지지 요청에 세 의원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개최가 성공한다면 오사카, 후쿠오카, 부산시 간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나아가 양국의 우호 협력에도 더욱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매도시(후쿠오카)와 우호협력도시(오사카)인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되기를 지지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시장은 입법부 핵심 인사이자 전(前) 외무성 대신인 고노 타로(자민당 중의원) 의원과 만찬을 가지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했다. 고노 타로 의원은 "부산과 대한민국의 유치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부산을 지지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도쿄 방문일정을 마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오늘(2월 1일) 오사카로 이동해 타카하시 토오루(高橋 徹) 오사카시 부시장과 만나 2025년 박람회 개최 준비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그리고 오사카 국제박람회협회와 만국박람회추진국을 방문, 핵심 관계자에게 올해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를 대비한 노하우를 듣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2월 2일 귀국한다.

오사카 일정에는 대한상의 관계자도 합류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교섭뿐 아니라, 양국 및 도시 간 경제 교류협력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종진/기자

통영시, 겨울철 대표 어종 대구 자어 방류

통영시는 지난 2월 1일 광도면 죽림만 해역에서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대구 자어 500만미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주관으로 천영기 통영시장을 비롯해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사)한국수산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회원,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방류한 대구 자어는 방류효과 증진을 위하여 진해만 해역에서 잡힌 대구 친어의 알을 채취한 후, 산양읍 풍화리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부화시켜 대략 1cm 크기로 키운 것으로,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자이다.

한대성 어종인 대구는 봄이 되면 북쪽으로 이동했다가 겨울철 산란기에 남해안 내만으로 돌아오는 산란회유성 어종이며, 특히 경남 진해만이 대구의 주 산란장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겨울바다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으로 불리는 대구는 비타민 A, D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인 리신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알·아가미·창자 등 부위별로 버릴 것 없이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겨울철 수요량이 높은 수산물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대구 자어 방류사업으로 어획량이 많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대구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이번 대구 자어 방류를 시작으로 자원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종자 방류(사업비 4억원, 볼락 외 7종)를 계획하고 있다.

이용준/기자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여행의 즐거움 더하고 관광객과 시민이 어울리는 장 만들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됐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에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 예술, 콘텐츠, 스포츠, 게임, 음식,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매력적인 K-컬처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이벤트는 해외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K-로드쇼'와 연계한 체험행사 개최, 현지 여행업계와의 공동 방한 상품 개발, 한국관광 해외홍보 누리집을 통한 상세정보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탈과 탈춤을 테마로 전 세계인이 신명 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고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을 계기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안동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살려 세계적인 축제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안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력적인 안동의 문화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더 편리하게! 더 빠르게!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발전 도모

신도청 외곽도로, 우계~우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로환경 조성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7년 차를 맞아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도로 이용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신도청 외곽도로(모아엘가~홍구동 사거리) 개설사업'에 5억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예천 종산교차로~청복간 도로 확·포장' 12억 원, '호명 백송~오천간 도로연결사업'에 6억 원을 각각 투입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총사업비 100억 원인 경상북도 직접사업 '예천~예천IC간 4차로 확·포장공사'를 오는 2024년 착공 목표로 현재 편입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계~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건의해 도로 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연결도로 추진으로 연계성을 확보하고 노후·불량 도로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53억5천만 원을 들여 군도사업 4개 지구와 지역현안사업 1개 지구, 농어촌도로 정비 13개 지구에 대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은 물론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박차

봉화읍 내성1리 면소골 마을 사업 신청해…오는 3월 최종 사업지구 선정

봉화군은 '2023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봉화군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2023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봉화읍 내성1리 면소골 마을을 신청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돼 낙후된 오지마을, 도시 달동네 등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도시형 공모사업부터는 사업 기간이 5년으로 1년 연장됐으며, 총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도시 지역은 30억 원 내외, 농어촌은 15억 원이며 도시 지역은 개소 당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이번에 신청된 면소골마을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 계획서는 지난 1월 16일,17일 경상북도의 사전평가를 완료했으며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2차(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지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봉화군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두 차례 선정돼 봉화읍 해저2리 솔안마을(2020~2023년)과 봉화읍 내성3리 가래골마을(2021~2024년)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에 신청된 면소골마을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낙후된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전북도,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전망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전북도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인'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의 제한 조치가 올해 상반기 중에 해제될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그간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은 전국 74개 만 중 유일하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이와 관련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가 어려워 인근 어업인의 피해와 관련 민원이 지속됐다.

전북도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역 정치권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과 유기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2017년부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립수산과학원과 군산대학교에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포획 금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수산자원의 남획을 초래하거나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2023년 상반기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오랜 노력 끝에 전북지역 어업인의 60년 숙원 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해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과 수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국보 지정서 전달

최응천 문화재청장, 익산에 국보 지정서 전달

백제시대 공예의 정수(精髓)로 알려진'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국보지정서가 국립익산박물관에 전달된다.

시는 서탑 사리장엄구 국보지정서 전달기념식이 1일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 정헌율 익산시장, 조봉업 전라북도행정부지사, 최흥선 국립익산박물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응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받은 국보지정서는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전달되어 국립익산박물관에 보관된다.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보로 지정고시됐으며, 이로서 전라북도는 9건의 국보를 보유하게 됐다. 그 중 4건이 익산에 소재하고 있어 다시 한번 백제역사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였다.

2009년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 중 발견된 사리장엄은 장기간의 보존처리와 학술조사를 거쳐 2018년 보물로 지정됐고, 발견된 지 14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는데 특히 익산 미륵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의 동력으로 큰 역할을 해 준 바 있어 익산시민들의 사랑이 각별하다.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백제 왕실에서 발원하여 제작한 것으로 639년(백제 무왕 40년) 사리 봉안 당시 모습 그대로 발굴되어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 연구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됐다.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응집된 탁월한 예술품으로 한국공예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유물로서 그 위상이 높다. 당시 동아시아 대외교류를 밝혀주는 자료로서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매우 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로 지정되어 백제왕도 익산에 영구히 보존된다.

2020년 개관된 국립익산박물관은 최근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가 전시되고 있는 상설전시실(백제의 최대사원 미륵사)을 좀 더 가까이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재단장됐다.

이는 사리봉영기와 사리내·외호가 전시된 공간을 미륵사지 서탑을 본떠 탑 중심의 심주석을 중심으로 십자 통로를 구현한 전시공간을 마련해 사리장엄 발견 당시를 형상화했다고 한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승격으로 백제왕도 익산의 위상이 재조명되고 있어 감격스럽고 문화재청, 국립익산박물관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 막판까지 다함께 힘 모으자"

1일 오전 완주문예회관에서 '2월 청원월례회의' 갖고 마지막까지 총력전 다짐

유희태 완주군수가 올 2월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하고 나섰다.

유 군수는 1일 오전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월 청원월례회의'에서 "완주군은 작년 말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착공하는 등 수소산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엔 최적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에만 수소 관련 2개 기업이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1,132억 원을 투자 결정하는 등 수소기업도 집적화하고 있다"며 "만경강 기적의 핵심 프로젝트인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국비 등 총사업비 6,270억 원을 투입해 165만㎡ 규모(50만평)의 산단을 조성, 기존의 320만평과 어울려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군수는 또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연초 방문을 통해 주민들과 민선 8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연초 방문에서 나온 190여 건에 달하는 주민의견은 철저히 검토해 군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지난달 중순에 전북현대FC와 완주공설운동장을 전북현대B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완주군 브랜드 가치 상승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고, 완주군이 대한민국 축구 메카로 한발 더 발돋움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그동안 50여 개의 크고 작은 수상과 고평가를 받는 등 완주군정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최근의 청렴도 평가는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며 "모든 것을 잘 해도 청렴도에서 주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에 잘했던 모든 평가들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유 군수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청렴과 친절"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공무원헌장을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군민과 민원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항상 친절하고 청렴하게 응대하는 완주군청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에 나서 달라"고 피력했다.

김광수/기자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10년 만에 김제에서 개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10년 만에 오는 9월 김제에서 개최된다.

김제시는 지난 1월에 열린 도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에서 도민체전이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김제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제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며 김제시와 김제시체육회가 공동 주관한다.

총 39개 종목에서 시군 선수단·응원단 등 1만여명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은 김제시에서 60회째를 맞이하는 대회인 만큼 전라북도민과 김제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화합체전으로 치러 질 전망이다.

시는 대회 홍보를 위한 엠블럼,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3월까지 선정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폐회식, 성화봉송,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3년 제60회 전북도민체전은 도내 최대 규모의 체육행사로 전라북도 체육인들의 축제이자, 200만 전북도민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라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고창방문의해 맞이, 선운사 관람료 무료 결정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 2월1일자로 관람료(일반 3000원) 무료 결정

천년고찰 선운사가 고창방문의해의 성공을 기원하며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1일 고창군은 대한불교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경우스님)가 관람료 무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창방문의해 성공을 위해 심덕섭 고창군수와 선운사 경우 주지스님이 힘을 합치며 최종 결정됐다.

심덕섭 군수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고창방문의해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정해주신 선운사와 경우 주지스님께 감사드린다"며 "국가지정 보물 8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요사찰인 만큼, 군에서도 문화재 관리와 보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선운산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에만 195만8000명이 찾은 고창군 대표관광지다. 국가지정 보물로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고창 선운사 대웅전 ▲고창 참당암 대웅전 ▲고창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만세루 등이 있다. 또 봄이면 동백꽃과 가을 꽃무릇이 만개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이번 선운사 관람료 무료 결정으로 고창 관광에도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해'를 추진하며 고창읍성과 고인돌박물관의 입장료 전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바꿔주며 무료화했다.

김현태/기자

시간을 넘나드는~~ 군산여행

군산시가 2월부터 시간여행마을 일원 대표관광지 투어 프로그램인 '동행투어'의 새단장을 마치고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시에 따르면 '동행투어'는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시간여행마을 일원의 대표 관광지를 2개 코스로 구성해 문화관광해설사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도보로 동행하며 여행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군산 근대문화유산 관광의 랜드마크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호남관세박물관(옛 군산세관)이 지난해 12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함에 따라 2월 정식으로 코스에 포함해 새로워진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A코스(모던로드)는 신규포함(근대역사박물관 - 호남관세박물관) - 장미갤러리 - 근대미술관 - 근대건축관 - 진포해양테마공원으로 이어지며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B코스(타임로드)는 신규포함(근대역사박물관 - 호남관세박물관) - 초원사진관 - 일본식가옥 - 말랭이마을 - 동국사로 이어지며 약 2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된다.

기존에 A코스(모던로드)와 B코스(타임로드)는 중복코스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호남관세박물관이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인기 관광지인만큼 어느 코스를 선택하더라도 근대문화유산탐방의 아쉬움이 없도록 2개 코스에 모두 반영해 완성도 있는 투어코스를 마련했다.

출발지는 주차 공간 확보 및 동선 연결성을 위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으로 변경했으며 2개 코스 오전(A코스:10시 30분, B코스:10시), 오후(A코스:14시, B코스:13시 30분) 각 1회씩 총 4회 운영한다.

다른 투어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 '동행투어'만의 장점은 사전 예약할 필요 없이 약속된 시간에 출발장소에서 1명이라도 모이면 해설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동행투어를 2년여만에 재개해 지난해 5월부터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하루 4회 해설사와 함께 걷는 투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 결과 2,62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호남관세박물관이 리모델링 후 개관함에 따라 군산 시간여행마을 일원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회에 동행투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군산관광의 이미지를 높이고 군산시가 근대문화유산의 대표 도시,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진안군, 여행하고 지원금 받고, 1석2조 관광 지원사업 추진

진안군이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1일 군에 따르면 군 관광산업 발전과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진안군 알뜰관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방법은 진안군을 방문하려는 개인 관광객(2~8인 이내)이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내 2개 이상 업체에 방문해 소비한 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관련내용 게재 및 관내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1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 시 3만원, 20만원 이상 시 7만원이며 반드시 2개소 이상의 이용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행 7일전까지 사전 신고서가 제출되야 하며, 여행객 모두가 진안군 이외 주소지여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여행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담당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게 된다. 한재길 관광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관광 침체기였는데 이제 다시 관광산업의 부활이 꿈틀대는 시점에서 관광객 유치의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진안군에 방문해 여행비도 지원받고, 여행의 즐거움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 및 자세한 사항은 군청홈페이지 공고문 및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수/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서 정책소풍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돌봄 서비스 유관기관장 간담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는 4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작을 앞두고 1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우리동네의원 등을 찾아 '정책소풍'을 열었다.

정책소풍은 민선 8기 현안에 대한 시민 정책소통 창구로, 광주시는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의료사협(이사장 박병기)이 운영하는 우리동네의원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봤다. 이어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현장에도 동행했다.

광주의료사협이 설립한 우리동네의원은 1000명의 시민이 직접 출자해 만들었다. 2명의 의사가 상주하며 방문진료·재활, 장애인주치의, 장거리 병원동행서비스 등 건강소외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자인 70대 A씨는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었는데 방문진료 덕분에 편히 진료 받았고 공허했던 마음도 채워졌다"며 "올해 꿈은 휠체어 타고 소풍 가는 것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료사협의 늘행복마을건강센터에서 진행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임형석 우리동네의원 원장, 김미정 광주사회서비스원 서구종합재가센터장, 류재중 하남종합사회복지관장, 엄미현 광산구 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작을 앞두고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할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운영,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 등 추가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시민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이 적극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전국 첫 사례인 만큼 중간평가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임형석 우리동네의원 원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첫 출발점이 됐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방문진료로 환자를 케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계도 가능해야 한다. 같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사지원·동행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김미정 광주사회서비스원 서구종합재가센터장은 "그동안 야간이나 공휴일은 서비스 공백시간이었는데, 광주다움 통합돌봄 도입으로 긴급한 상황이나 주말에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 다행이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수고로움을 담당할 돌봄종사자의 처우에도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의 중요성, 데이터 구축과 민간기관 공유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첫 발을 뗀 뒤에도 풀어야할 매듭이 많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기관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특히 기존에 있는 돌봄 서비스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플러스 시켜서 어떻게 하면 틈새를 막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 8기 복지분야 1호 공약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우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되 사각지대와 틈새는 광주돌봄(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7대 분야)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오는 4월 본격 시행한다.

김병수/기자

구례 화엄사 연기암 어머니의 숲길 환경 정화 울력

화엄사 지리산국립공원 연기암 어머니의 길 숲 환경정화 울력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대화엄사과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윤명수) 주관으로 2023년 2월 1일 오후 13시부터 15시까지 제1회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사 연기암 어머니의 길 숲과 계곡에 환경 정화 울력을 했다.

울력에 동참한 단체는 야생동물보전원, 지리산생태탐방원, 화엄사신도회, 구례군청, 구례군의회, 구례군의용소방대, 구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례군노인전문요양원, 구례군가족센터, 구례군청소년문화의집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정화활동에 앞서 덕문스님은 행사에 앞서 효심이 담겨 있는 어머니의 길 숲의 역사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화엄사와 국립공원이 처음으로 환경정화를 하는 의미를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리산의 환경정화와 함께 어머니의 길을 걸으면서 마음에 정화도 함께 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차수민 보전과장은 "화엄계곡 정화활동을 통해 국립공원과 물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건강한 지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윤명수 소장은 말을 전했다.

김성현/기자

전남도-이전 공공기관, 상생협력 강화 한뜻

빛가람혁신도시서 간담회…지역 발전·혁신도시 명품화 협력키로

전라남도는 1일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발전과 혁신도시의 명품화를 위해 상상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이전 공공기관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 등 25명이 참석해 상생협력사업 추진과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논의했다.

전남도는 10개의 상생협력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전남 정보보안 클러스터 구축, 정부 전력반도체 예타 대응,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망 조기 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해 이전 공공기관과 발맞춰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조기 추진, 2023 전남도 메가 이벤트 참여 및 홍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스템 지속 운영,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등 4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논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전 공공기관에선 나주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시범도시 구현,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지역 자원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등 3개의 사항에 대해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전 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상생 협력체계를 확고히 다져 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서 세계 속으로 힘차게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 SOC복합센터'건립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3년간 3조 1천억 원을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고 있다.

정해명/기자

장흥군, '100세 시대' 평생교육 사업 확대

김성 군순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장흥군이 100세 시대를 맞아 지역민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평생교육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평생교육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도 운영한다.

첫 단계로 '2023 장흥군 평생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인문해교육, 대학연계 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10개소 각 100만원), 기관·단체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5개소 각 350만원)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의 자발적 학습의지를 고취시키고,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군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 교육복지의 보편화 실현에도 노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한다.

중·고교생에게는 학교수업 이외에 수반되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후 학습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년 진행되는 인재육성 장학생 및 특별 격려 장학생 선발을 위한 계획도 2월 중 공고 예정이다.

정남진 도서관은 단순한 정보자료 확충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공적 공간으로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저변을 확대하도록 운영된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더불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바둑교실, 전래놀이 등 도서관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정남진도서관은 공모사업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과 함께 하는 책읽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응모하여 양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성 군수는 "평생교육 사업의 확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 된다"며, "인문교양, 문화예술, 문해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상급자부터 솔선수범' 나주시, 민선 8기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 박차

전라남도 나주시가 조직 내 중추적 역할인 6급 팀장 공직자들의 고유 직무 배정을 통해 민선 8기 제대로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기존 팀별 업무 총괄 관리를 담당해 왔던 팀장 직원들의 고유 업무 분담을 통해 수평적 업무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상급자부터 솔선수범 세대 간 공감과 소통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실질적 업무 성과를 수평적으로 다루는 '동료(다면)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윤병태 시장 지시사항인 '민선 8기 일하는 조직문화 방식 개선' 계획에 따라 6급 팀장 직원에 대한 고유 직무 배정 등 대대적인 사무 분장을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휴직·병역 등 지속적인 결원으로 인한 특정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자 시행됐다.

1월 기준 육아·질병·가사·병역 등을 사유로 휴직 중인 직원은 전체 직원 수의 약 10%인 109명에 달하고 이 중 7급 이하 직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결원 보충을 위한 신규 공직자 채용 증가로 행정 경험이 적은 직원들이 부서에 배치되면서 과업 부서 특정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최근 부서장 현안업무 회의에서 "결원, 휴직, 신규업무 등으로 특정 직원들에게 과중되는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팀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함은 물론 팀장이 팀의 핵심적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6급 팀장에 대한 실질적 단위업무 분장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달 부서장 책임 하에 팀 총괄 업무를 제외한 팀장 직원들의 핵심적 단위 업무 사무분장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팀 내 중요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 '팀원 업무 중복 아닌 구분가능한 단일 업무', '조직개편·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업무', '집단 민원 등 악성·고질적 민원 해결 업무' 등을 기준해 사무 분장을 지정했다.

또한 최종 결제 체계도 부서장이 아닌 직접 기안한 실무 직원과 팀장이 직접 결제를 맡도록 해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부서장도 결제 과정에 참여해 실무 직원의 충분한 업무 숙지, 보완을 위해 조력자 역할을 한다.

팀장 사무 분장, 결제 체계 개편과 더불어 시는 수평적 평가인 동료(다면) 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연공서열 등 기존 하향적 인사평가 제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실질적 업무성과, 기여도 등에 따라 제대로 일한 직원이 평가받는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조직의 중추인 팀장 직원들의 고유 직무 배정을 통해 다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정 직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상급자 솔선수범을 통한 세대 간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목포소방서,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주의 당부에 나서

목포소방서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량 증가와 함께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주의 당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목포소방서는 실례로 지난달 31일 오전 7시경 목포시 죽교동 한 아파트에서 전기매트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관계인의 빠른 대처로 초기에 진압이 적절하게 이뤄져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난방용품을 사용할 경우 노후된 용품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KC 마크 인증이 된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사용 전 전선 파열 여부와 파손·마모 여부를 확인하고 장판이나 콘센트에 낀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기장판 위에는 반드시 라텍스와 같이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재질이 아닌 얇은 이불을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 시 온도를 35~37℃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난방용품 안전지침 준수 및 소화기 비치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화재위험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화재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해명/기자

해남군, 청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

월 10만원 최대 1년 지원, 전월세 거주 일하는 청년 대상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대출금 5,000만원이상 전세 또는 60만원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기준 311만원)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군복무자 및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3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14명을 최종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해명/기자

관광산업 연계,강원 화훼농업 6차산업 전환 추진

청년 농업인 중심'꽃 명소공간'및'체험장·꽃카페'조성

강원도는 화훼농업 6차산업 전환과, 꽃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화훼단지조성', '체험장', '꽃 카페' 등 관광화훼산업 지원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화훼산업은 고령화, 인력부족, 수출감소, 소비위축에 따른 생산규모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 관광화훼 중심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화훼축제, 체험장 등 방문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생산·판매 중심 화훼산업 구조를 체험·관광화훼로 정책 전환, 다변화를 위해 '화훼 테마공원 꽃묘 생산시설 지원',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공모)' 2개 사업을 추진한다.

'화훼 테마공원 꽃묘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지역별 관광지·축제와 연계한 대규모 경관지구 조성용 '꽃묘 생산시설'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개소, 200백만원을 추진하여 관수·관비시설, 온·냉방시설, 보광시설, 베드시설, 작업장 등을 지원한다.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 지원사업'은 화훼 재배농장 인근 체험시설, 꽃 카페를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본 사업은 총 5개소, 500백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험·교육장, 꽃 판매대, 소규모 꽃카페 등의 조성을 추진한다.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만39세 이하 청년(승계) 농업인에게는 우선선정 기회를 부여해 고령화되는 농업·농촌에 청년인력을 유입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2월17일까지 강원도 공고문에 개시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시군 원예업무부서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심의는 전문 평가심사단 구성을 통해 진행된다.

최덕순 농산물유통과장은"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철원 고석정 꽃밭', '평창 백일홍 축제'처럼 꽃 명소 공간 조성을 통해 보고 즐기는 관광 화훼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화훼농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체험·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화훼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평창군, 자매도시 화성시와의 교류행사 추진

평창군은 오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대관령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화성시 공무원을 초청하여'2023 평창 스키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평창 스키아카데미'는 2009년 3월 17일 평창군이 화성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이래 매년 개최되는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양 도시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형식적인 관계를 탈피하고 상호번영과 협력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교류 협력 사업이다.

이번에 평창군을 찾은 화성시 공무원은 김성현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화성시 소속 공무원 35명으로, 이틀간 동계스포츠 체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유치 시설 견학, 평창 주요 관광지 탐방 등 평창의 대표 즐길거리를 만끽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평창군과 화성시는 지역의 대표 즐길거리이자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스키와 요트를 테마로 하여, 매년 겨울과 여름에 상대 도시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교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양 도시 공무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주현관 기획실장은"지역의 대표 즐길거리를 이용한 교류행사는 양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자매도시 화성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상호 협력 강화와 공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에너지 위기 선제대응 화천군, 취약주민 난방비 걱정 덜었다

작년 9월, 저소득층 취약군민 난방비용 지원금액 상향 조정

화천군의 발빠른 대응으로 저소득층 취약가구들이 난방비 폭탄 걱정을 크게 덜게 됐다.

화천군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 18세 미만,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유류, 연탄, 화목, 가스, 전기, 펠릿 등 주거형태에 맞는 난방비나 쿠폰을 지급해오고 있다.

군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악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지난해 9월 지원계획 수립 당시, 난방비 지원금액을 4억4,624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의 지원이다.

이후 국제유가 등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던 군은 두 달 뒤인 작년 11월말, 등유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가구 당 34만원 상당의 난방유 쿠폰을 즉시 추가 지급했다.

덕분에 가구 당 등유 지원량은 당초 400ℓ에서 600ℓ로 크게 늘었다.

실제 2021년 12월 당시 1ℓ 당 1,062원이던 난방등유 가격은 지난달 1,565원, 이달 1,521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덕분에 올해 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화천지역 등유 사용 저소득층 주민들은 큰 문제없이 겨울을 나고 있다.

도내 일반적인 도시가스 요금은 2021년 말 1㎥ 당 780원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1,020원으로 수직상승했으나, 화천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관련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화천군은 등유 뿐 아니라 다른 난방연료 사정까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일반 LPG 가격은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1㎥ 당 가격은 5,044.58원이다.

이에 비해 화천군이 추진한 LPG 배관망 사업을 통해 연료를 공급받는 가정은 일반 용기의 LPG에 비해 약 30% 저렴한 1㎥ 당 2,962원의 연료비를 내고 있다.

배관망 설치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 가구는 50% 면제인데다 에너지 바우처까지 지급돼 큰 부담이 없다.

이중 삼중의 에너지 복지망이 취약군민들의 난방 걱정을 덜어주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심야전기 비용이 2022년 12월, 1㎾에 84.1원에서 현재 95.5원으로 올라 가구 당 1,000㎾ 사용 시 약 1만1,0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최근 정부가 취약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급계획이어서 실제 취약가구들의 난방비 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난방비 지원기간이 끝나는 4월까지,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한 보충지원 연계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만식/기자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사업 공모

양양군이 주민화합의 생활자치 토대를 마련하고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다양한 문제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결하는 성과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성장 동력을 키웠으며, 코로나-19기간 동안 침체될 수 있었던 공동체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도 주민 제안에 의한 공모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공동체(15개 마을 내외)에는 1개 공동체당 2천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유형은 ▲환경개선 ▲공동소득 ▲복지·안전 ▲공동체회복 등 5개 분야이며, 마을안길 포장 등 마을숙원해결사업, 일회성 행사위주 사업, 여행성 사업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공동체별 공모 신청방법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서식을 참고하여 2월 15일까지 군청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2월 중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사업에는 모두 14개 마을공동체가 공모사업을 운영한 결과, ▲ 최우수 강현면 사교리 마을회 ▲ 우수 서면 장승2리 마을회 ▲ 장려 현남면 남애3리 마을회, 현남면 북분리 마을회가 각각 선정돼, 100만원~30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동해시, 제8기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 발족

동해시는 최근 제8기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를 발족하는 등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1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심규언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서포터즈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이 열렸다.

이번에 위촉된 SNS 서포터즈는 관내 6, 관외 19 등 총 25명으로 이날 위촉식에서는 올해 1년간 활동에 앞서 SNS 서포터즈 상호 간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또, 지난해 UCC 공모전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홍보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무릉별유천지 등 체험시설과 정책 사업 등을 안내하며 동해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SNS 서포터즈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시의 다양한 정보를 게시하며 동해시를 알리는데 앞장서는 홍보 파수꾼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시에서는 게시 횟수와 내용에 따라 원고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서 시의 숨은 관광명소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5월중 2일간 관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천곡황금박쥐동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무릉별유천지 시설 체험 등 SNS 서포터즈 팸투어를 진행하며 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홍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임정규 홍보감사담당관은 "동해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뉴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소재로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제8기 SNS 서포터즈 분들과 위촉식을 통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전국 최고품질 쌀 생산, 미래를 여는 철원군

철원군이 자체 육성 신품종 보급을 확대한다.

"철원 오대쌀"은 1982년 일본벼 2종류의 품종교배로 만들어진 품종이다. 수확량이 적고, 병에도 약한 편이지만 철원 기후에 적합한 조생종이다. 소비자의 쌀에 대한 선택기준이 양에서 밥맛(질)으로 변화는 과정에서 철원오대쌀은 "밥맛 좋은 쌀"로 그야말로 히트를 쳤다. 또한 청정이미지를 토대로 이유식 맘마밀 원료, 대한항공 기내식 선정 등으로 "철원오대쌀"은 전성기를 맞았다.

그로부터 40년 넘게 철원군 벼재배의 89%를 오대벼가 차지하고 있다.

오대쌀 재배 20년이 넘어서면서 오대쌀 밥맛을 넘보는 신품종이 나오고, 오대벼 단일 품종으로 경쟁해야 하는 부담감 등에 철원군은 선제적으로 철원농업의 미래를 위해 2004년 강원도 최초로 육종전문인력을 채용벼 육종연구를 시작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육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 육종연구라고 시작은 했지만 연구시설 인력등은 부족하고 육종하는 기간도 길다, 벼 품종 육종은 미질특성, 병해충 강도, 수량 등 요구 특성을 찾는 육종재료선발, 꽃가루 인공수정을 하는 인공교배, 교배된 종자를 심기를 반복하여 의도했던 특성을 가진 것을 선발하는 우량계통 선발, 선발된 우량계통을 출수기, 키, 수량성, 내병충성, 미질 등을 정밀 검정하는 생산력검정 예비시험과 본시험 거쳐 최종선발하고 지역적응 시험을 거친다. 이렇게 10~15세대를 관찰해야하기에 짧게는 8년, 길게는 12년까지 걸린다. 그 이후에도 품종등록절차를 통해 내병충성, 수량성, 미질특성 등을 다시 검토해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철원군은 2019년까지 '두루진미', '두루찰', '두루퀸', '새운광' 4종에 대한 품종등록에 성공했으며, 2023년 현재는 '철기40', '철기50'을 출원했으며, '철기49호'를 출원 준비 중에 있다.

'철기40(출원 2021-188)'은 대립종에 중간찰로서 찰기가 뛰어나 쫀득하고 부드러운 조직감을 자랑하는 특성을 지니며, '철기50(출원 2022-203)'과 현재 출원 준비 중인 '철기49호'는 오대벼보다 일주일 정도 수확이 빠르고 높은 밥맛을 가지고 있어 추석햅쌀시장에 안정적으로 철원쌀을 공급할 수 있다. 위 3품종은 모두 오대벼와 타품종의 교배·육종을 통해 이루어졌고 10여 년간의 철저한 선발을 거친 만큼 최근 변화된 철원농업환경에 적응성이 뛰어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2023년 현재 철원군은 벼품종으로는 가장 많은 고유품종과 다양한 유전자원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이는 철원군농업기술센터의 육종실무자뿐 아니라 철원군민 모두의 자산이다. 철원쌀농업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최근 국내 쌀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조건에 대응해야 하고, 소비 감소로 인한 판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군은 시대변화에 맞는 품종개발 및 보급, 재배매뉴얼을 통한 현장중심 기술 투입에 힘쓰는 한편 적정 생산량 조절을 위한 생산면적 조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통합RPC운영을 위한 품종 다변화 및 철원오대쌀 고가브랜드 유지를 위한 대체 품종으로 철기50, 철기49호를 조기 보급할 것이며, 이를 위해 2023년에는 지역농협(농업인)과 협력하여 시범사업 및 채종단지 100ha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세나/기자

강원FC 2023 시즌권 강릉시민 1만 구매 릴레이

홈경기 활성화 추진을 통한 시민 화합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강릉시가 K리그 개막에 따라 홈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강원FC 2023 시즌권 단체구매 릴레이에 나선다.

1일 오후 3시 강릉시청 앞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을 선두로 구매 릴레이 첫 스타트를 끊고, 권성동 국회의원과 국·과장, 강원FC 공식 서포터즈인 나르샤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강원FC는 오는 26일(일) 대전에서 열리는 2023시즌 개막전 이후 춘천과 강릉에서 홈경기를, 이어 7월 7일부터 정규리그 10경기와 FA CUP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릉 시즌권으로 FA CUP 결승전을 제외한 강릉 홈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기 입장이 가능하다.

시즌권 판매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인터파크 티켓에서 구매 가능하며, 홈경기 당일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강원FC 홈경기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붐조성에 나서면서 남은 시즌권 판매기간동안 시민과 함께 10,000매 이상의 구매 릴레이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시즌권 단체구매 릴레이가 관내 단체들과 강릉시민들의 구매 참여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홈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여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새로운 도약 준비하는 아산시, 박경귀 시장에게 듣는 새해 설계

박경귀 시장 "문화예술 도시·참여자치 도시 원년으로 삼겠다"

매년 상전벽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새해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로운 아산'을 만들겠다"고 말한다.

박경귀 시장이 꿈꾸는 '새로운 아산'은 1년 365일 문화예술이 넘쳐나는 도시이자, 실질적 참여자치가 구현되는 도시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박 시장은 새로운 아산을 만들기 위한 여러 토대를 닦았다. 2023년은 그 토대 위에 구체적 사업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민선 8기의 실질적 원년인 셈이다.

그중에서도 '아트밸리 아산'은 민선 8기 아산시가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다. 박 시장은 신정호 호수 정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충남 지방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준비하는 동시에, 인근 대형 카페와 레스토랑에 갤러리 기능을 더해 이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한다.

인구 37만의 충남 두 번째 도시이자,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2위·충남 1위라는 빛나는 명예 뒤에 가려진,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문예회관이 없는 유일한 도시'라는 부끄러운 아산의 명함.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 만큼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소비하려는 시민의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아산시 문화예술 인프라는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한 자구책이다.

박 시장은 "신정호 아트밸리가 구축할 아산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도시브랜드는 아산만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실험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신정호 인근 카페 25곳에서 왕열, 조영남, 나얼 등 국내외 유명 작가 103명의 작품 187점을 전시하는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아트 페스티벌-100인 100색전'을 진행했는데, 문화와 예술, 생태와 자연, 카페와 그림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전시로 방문객은 물론 참여 작가들에게도 특별한 기억을 선사했다. 시는 올해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2024년에는 국제 규모의 비엔날레로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산시 주최로 신정호 인근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열렸는데, 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정상급 성악가들의 오페라 공연 소식에 준비된 1700석이 일찌감치 매진될 정도로 시민 반응이 뜨거웠다. '아산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면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수준 높은 문화 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확실한 수요와 요구를 스스로 증명한 아산시는 그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음악 축제를 '신정호 아트밸리'로 브랜드를 통일하고 재즈, 오페라, 뮤지컬, 록, 합창제, 국악, 트로트 등 장르별 음악 축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인프라 부족을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하려는 아산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도시에도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아산을 1년 365일 볼거리·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도시, 일부러 관광객들이 찾아올 만큼 흥미로운 행사가 넘쳐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아트밸리 아산'은 문화예술 정책을 넘어,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자, 아산의 미래 먹거리인 셈이다.

또한, 2023년은 아산시민의 실질적 참여자치를 보장하는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해이기도 하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던 위원회에 시민과 활동가,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혁신적인 시민참여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1월 시민위원 공개모집을 진행했는데, 제1기 시민위원을 뽑는 공개모집에 780여 명이 몰렸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박경귀 시장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 위원분들 한 분 한 분은 행정과 시민 사이에 가교가 되고, 전문가와 활동가, 시민과 공무원 등이 한데 모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창의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될 120명의 시민위원을 주축으로 분야별 전문가 위원, 당연직 공무원 위원 등 총 217명이 12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아산시의 실험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박 시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모든 시정의 최중심은 '시민 모두의 행복'이 될 것"이라면서 "2023년에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통해 내면이 견고하고, 건강한 도시 아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숫자로 내세우기 좋은 양적 목표가 아닌, 시민의 문화예술복지 확대, 시민의 참여자치 기회 확대를 내세운 아산시의 남다른 신년 목표에 기대와 관심이 모인다.

김원호/기자

충청남도, 충남테크노파크, 15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도내 영세 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충청남도와 충남테크노파크는 도내 영세 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분야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23년 충청남도형 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신규 추진 의견 수렴을 위해 15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방안 모색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주도로 충청남도의 예산과 15개 기초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충청남도형 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신규 추진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신규 방안의 검토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이 스마트공장 30,000개 달성과 함께 23년에는 예산이 감소하고, 스마트공장 기초를 제외한 고도화 분야만 추진하기로 결정되면서, 지역주도의 해결책이 필요하게 됐다. 특히, 이러한 해결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비용적 한계로 스마트한 경영환경으로의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이번 간담회에서의 중점사항은 23년에 변화는 스마트공장사업이 지원방식에 대한 충남도와 15개 기초지자체의 대응방안이었다. 충남도와 15개 기초지자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충청남도의 열악한 산업기반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지역주도의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산업기반을 강화해야한다는데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략적으로 국비로는 기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충남도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주도 예산으로는 소기업 중심의 기초 지원을 통한 2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산업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도출했다.

충남테크노파크 서규석 원장은 "충남테크노파크와 충청남도는 향후 다양한 정책과 사업 발굴을 통한 충남 중소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 전환으로 제조업 체질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염두해 둔 제조혁신으로 충남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523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했고, 22년은 110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예산군,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분석결과 전국 8위·군단위 1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상위권 랭크

예산군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주관한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2023년 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예산군이 전국 지자체 중 8위, 군단위로는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분석결과에 따르면 1위 서초구, 2위 강남구, 3위 수원시, 4위 송파구, 5위 창원시, 6위 고양시, 7위 천안시, 8위는 예산군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의 브랜드평판 참여지수는 27만4974점, 미디어지수는 63만4164점, 소통지수는 125만3943점, 커뮤니티지수는 148만4765점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브랜드 평판지수는 총 364만7845점으로 집계됐다.

군은 최근 군과 더본코리아가 함께 추진 중인 예산형 구도심 및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과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모노레일 등 새로운 관광명소의 개발, 덕산온천 개발과 충남방적 재활용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과 삽교역 신설, 민자 고속도로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이 브랜드 평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브랜드에 대한 평판조사를 실시했으며,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빅데이터 3억9691만여개를 분석해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 분석을 추진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되며,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으로 측정하고 있다.

▲활기 넘치는 예산시장의 모습

군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에서 전국 8위, 군 단위로는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예산군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현재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열어나가고 미래비전과 먹거리 수립에 박차를 가해 더욱더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진천군, 올해 첫' 일사맞춤 구인구직 만남의 날'성료

진천군은 올해 첫 '일사맞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일사맞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코로나19로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일자리 정보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군은 지난해 만남의 날을 20회에 걸쳐 운영하고 면접인원 201명, 채용인원 93명의 결과를 냈으며 올해는 더 많은 구인 구직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행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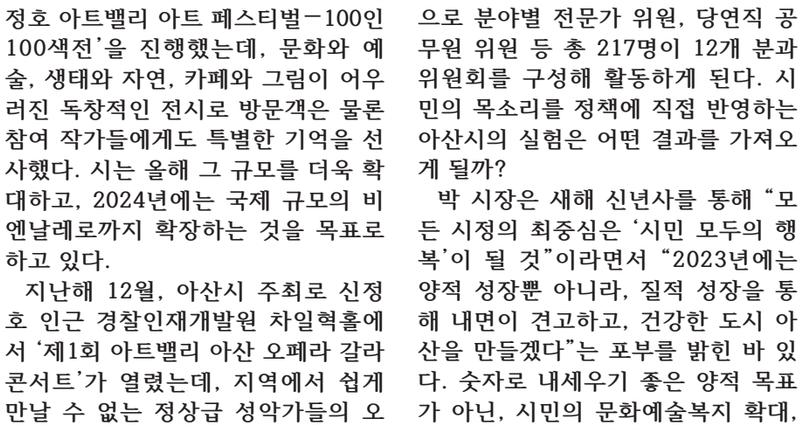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이든에프엔씨 기업의 취업자를 찾기 위해 진천군종합사회복지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열렸으며 많은 구직자가 관심을 가졌다.

㈜이든에프엔씨는 이월면 산수 산단에 위치해 조리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이번 행사를 통해 1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되고 고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과 채용행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조길형 충주시장, 주민 일상개선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조길형 충주시장이 읍면 지역의 주민 생활 개선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조 시장은 1일 시청 탄금홀에서 진행된 월례조회에서 "2023년 주민과의 대화 읍면지역 순방을 마쳤다"며 지역사회의 달라진 관심사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상·하수도, 도로, 축사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주거 여건에 대한 요구가 주민 의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업 유치처럼 도시 발전을 위한 굵직한 조건들은 잘 마련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자, 그만큼 일상 속 세부적인 부분에 눈길이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 앞으로는 읍면동의 자체적인 추진과 함께 본청 관계부서에도 직접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조길형 시장은 정부의 실내마스크 의무해제에 대해 "마스크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처럼 해제에 따른 변화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예상되는 실생활의 빈틈이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대전시, 수소차 300대 보급... 대당 3,250만 원 지원

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구매 지원수량은 일반 270대, 우선순위(취약계층, 다자녀 등) 30대 등 총 300대이며,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일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하여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또는 법인이 1대에 한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몇 가지 달라졌다. 우선 지난해까지는 이미 수소차 보조금을 받았던 경우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판암수소충전소가 신설됨에 따라 판암1동 거주자에게도 추가로 우선순위를 자격을 부여했으며, 우선순위별로 물량을 배분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차량 소유주가 의무운행 간동안 차량을 폐차, 말소하지 않고 대전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다른 친환경 자동차와 같이 시비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소차 제작판매사인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전시는 구매계약일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한다.

수소차 보급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수소차는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친환경·고효율 모빌리티"로 "수소차 보급 확대로 대기 질 개선과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수소차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8개소(학하동, 대성동, 상서동, 신대동, 자운동, 갑동, 삼정동, 구도동)에 수소충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수소충전소 2개소(구암동, 금고동) 신설하고 기존 학하 충전소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총 1,161대의 수소차를 보급했다.

김원호/기자

제천 약용산업 발전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3개 기관은 2월 1일 제천시청에서 '제천시 약용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다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해 마련된 자리로, 김창규 제천시장,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김꽃임 충북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 기관은 감초 신품종 등 약용작물 산업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약전등재가 예고된 국산 감초 신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식기술 전파와 주산지 육성을 계획해 왔다. 이에 시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오랜 약용작물 재배경험과 다양한 약용산업 인프라를 내세워 협약을 이끌어냈다.

충북도와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감초 등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및 충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농가 소득창출과 약용작물 산업화를 촉진을 위해 각 기관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약용작물 재배농가 및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추후에도 유기적 협조체계를 지속해 좋은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케이디에이 장영탁 대표, 2월 김해시 자랑스러운 CEO상 수상

김해시는 1일 정례조회에서 ㈜케이디에이 장영탁 대표에게 '2월 김해시 자랑스러운 CEO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매월 초 정례조회 개최 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한 기업 대표에게'자랑스러운 CEO'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케이디에이는 1979년 창립한 자동차 구동축 핵심부품 생산기업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 신뢰도와 가격 경쟁력이 엄격히 요구되는 북미지역 등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에 900여 종 이상, 연간 1,0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며 해외지사 설립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장영탁 대표는 2019년부터 김해 자동차부품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고용으로 2022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장영탁 대표는 "끊임없는 기술투자와 부품 개발로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덕분에 자랑스러운 CEO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장영탁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며,"앞으로도 탁월한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조현일 경산시장,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시민 행복 및 복리증진 공로

조현일 경산시장은 1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시민 행복 및 복리 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reedom Democracy)에서 수여하는'자유장'을 수상했다. '자유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에 기여한 각국 저명인사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야오잉치(Yao Eng Chi)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를 대신하여 이우경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회장이 수여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한 이래 자유민주주의 수호 강연회,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태극기 달기 캠페인, 어머니 포순이봉사활동,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등 자유총연맹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화합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등'시민중심 행복경산'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을 수상한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경산 만들기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초석이자 든든한 힘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면서 시민들의 안보 의식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이완에 총본부를 둔 세계자유민주연맹은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인류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민간기구로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등 17개 집행위원국을 포함한 13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2001년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저명 인사를 발굴해 자유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자유장 수여식에 이어 '탈북민 1호 통일학 박사'이자 각종 강연 및 교육, 유튜브, TV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승현 고신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최근 북한 실상과 안보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됐다.

강연회를 주최한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회장 이우경)는 최근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일구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의지가 약화된 것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유·평화·번영의 장을 만들고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경북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강연을 희망하는 도내 시·군청과 각종 단체, 기업 등에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우경 경북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강연회라면 모두가 지루하고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북한의 실상과 통일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동력인 자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이번 강연회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올바른 역사관·통일관을 정립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광삼/기자

부안 곰소왕젓갈, 2023 전국해양수산 발효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전북 부안군 곰소왕젓갈 이상애 대표가 2023년 전국해양수산 발효식품대전에서 최우수상(단체부)을 수상했다.

지난 1월28일 강원도 삼척에서 전국 최초로 열린 이번 대회는 농식품부 산하 사단법인인 대한민국치유식품진흥회와 삼수령전통주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장류발효인협회가 주관하여 해양수산식품부문, 해양수산발효부문, 전통주부문 3개부문으로 전국 총75팀 1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수상자 이상애씨는 2019년부터 곰소왕젓갈 대표로 젓갈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2022년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에서 대상, 대한민국치유음식 경연대회 발효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고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부안 대표 특산품인 뽕과 젓갈을 이용한 뽕잎어리굴젓, 뽕잎조기젓갈 등으로 해양수산발효부문으로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 참여를 계기로 해양수산 먹거리를 재조명하고 발굴하여 향후 수산발효식품 발전에 도화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젓갈 발효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군만의 차별성 있는 전통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상품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양천구의회 임정옥 의원,'제6회 세계평화공헌대상'의정부문 수상

양천구의회 임정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6, 신정7동)이'제6회 세계평화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대상을 수상했다.

'세계평화공헌대상'은 매년 각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 및 뛰어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추천받아 구성원들의 귀감이 되는 모범인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임정옥 의원은 양천구의회 3선 의원으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양천구 갈산공공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는 등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하고 있다.

임정옥 의원은"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여기겠다."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일/기자

함양 소향다례원 서주희 원장 농촌진흥청장 표창 수상

'전통 다도' 지역사회 보급 및 육성 기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에서 '전통 다도'를 전수하고 있는 소향다례원 서주희 원장이 지난 1월 27일 마산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차문화연합회 신년례 및 유공회원 표창 수여식에서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서주희 원장은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후 전통다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함양 남계서원 일두아카데미 다도강사, 함양향교·안의향교 다도교육, 개평 한옥문화체험 프로그램 다도교육, 함양문화원 다도프로그램 강사, 위성초등학교·서상초등학교 다도인성프로그램 강사 등 지역사회 다도보급에 힘써 왔다.

또 마산회원구 양덕2동사무소에서 여성인성지도자 대상 다식 교육, 각종 행사 시 TeaTable 봉사 등 전통다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창의적인 차문화 활동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며 다양한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한 공으로 지난 2018년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이사장상'을 수상하여 선비의 고장 함양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였다.

아울러 전통다예 보급에 앞장서면서 제자육성에 매진하여 다향축전 전국들차경연대회에서 다수의 입상을 가져왔으며, 2022년에는 3명의 제자가 참가하여 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 금상(경상남도의회의장상), 은상(하동군수상)을 휩쓸기도 했다.

서주희 원장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다도 문화를 널리 보급되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마산대학 약초개발학과,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통다도예절학과 졸업, 한국차인연합회 소운예다원 전통다도예절 사범 수료, 한국차인연합회 전통다도예절대학원을 졸업하여 대한민국 고급다례사 자격증과 다도교수 자격, 홍차티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했다.

또한 유아다례교육 지도자 1급, 청소년다례인성교육 지도자 1급, 보육교사 2급, 사회 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 1급, 약용식물 자원탐색지도사 등 각종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열악한 농촌환경 속에서도 다도 보급을 위한 일념으로 소향다례원을 운영하면서 선진 '행다 기법'을 배우기 위해 서울중앙대학교 한·중·일 차문화심포지움에 초대 참가했으며, 진주시-일본 큐슈 나카츠시 차문화 교류참가,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 수료, 다향축전 전국들차경연대회 특상, 다솔사 들차회 찻자리 경연대회에 입상했으며 2022 진주 다식 경연대회 은상을 수상했다.

제자육성에 매진하여 다향축전 전국들차경연대회에서 다수의 입상을 가져왔으며, 2022년에는 3명의 제자가 참가하여 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 금상(경상남도의회의장상), 은상(하동군수상)을 휩쓸었다.

최광용/기자

충북농기원, 자원개발팀 최우수 전문연구실상 수상

충북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촌진흥기관 중 가장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룬 부서에 주는 상인 최우수 전문연구실상에 원예연구과 자원개발팀이 작년 12월 15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원개발팀은 유망한 원예작물을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대량증식하고 있는 부서로 최원일 팀장과 권영희 농업연구사, 김경옥 연구원, 김희규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은 인원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농업연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이와 같은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됐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인 복주머니란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하여 '복주머니란 기내 발아 대량증식 방법'으로 특허출원하여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또한, 도내 사과에 피해가 큰 과수화상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특허기술인 '화상병 저항성 사과대목 기내 대량증식 배양 방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현재 화상병 저항성 사과 대목을 대량증식 중에 있다.

그 밖에 딸기 생장점 배양을 이용한 무병묘 생산 기술과 아열대 작물인 카사바의 국내 최초 노지재배 성공, 약용작물인 단삼, 감초 및 오미자 등의 대량증식 기술 개발 등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을 개발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특허기술 15건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고, 관련 산업체에 64건의 통상실시를 체결하여 기술이전 하는 성과를 이뤄왔다.

자원개발팀 최원일 팀장은 "현재까지 축적된 조직배양 기술들을 바탕으로 약배양에 의한 반수체 식물 품종 육성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형질전환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영동소방서, 이주영 소방교 소방행정 종합감사 유공 표창

영동소방서 이주영 소방교가 2022년 소방행정 종합감사에서 우수한 직무능력을 인정받아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주영 소방교는 지난 2022년 추진된 소방행정 종합감사에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직무수행으로 소방행정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재난대응과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영 소방교는 2019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큰 역할을 수행했으며,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행정업무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구급활동 중 급성 뇌졸중 환자의 증상을 빠르게 인지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빠른 이송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냄으로써 브레인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 받은 바 있다.

이주영 소방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방조직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꾸준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음 5G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종합포털 개시

기업 간 정보공유, 기술지원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종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과 '이음5G 지원포털' 서비스를 1월 31일 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전국 확산을 위해 이음5G 유관기관, 사업자, 장비·단말 공급사 등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종합적인 홍보와 지원이 가능한 이음5G 지원포털(eum5gportal.kr 및 이음5g포털.kr)을 구축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이음5G 지원포털은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기술, 장비개발, 인증현황 등 이음5G 관련 최신 동향과 더불어, 부처별 이음5G 정부 지원사업, 이음5G 무선국 현황·통계 등 이음5G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음5G 제품·서비스를 홍보, 판로 개척, 협업 등의 사업자간 정보교류의 장을 구축하여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적인 홍보·지원으로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음5G 지원포털에 접속하여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이음5G 지원센터에서 제공중인 주파수 신청·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혼·간섭분석 등 이음5G 신청을 위한 행정·기술 지원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산업체의 애로사항별 실시간 정보공유·Q&A 기능을 통해 이음5G 관련 여러 유관기관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안내, 민원 접수, 정보 공유하는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음5G 사업자인 위즈코어㈜(대표 박덕근), ㈜케이티엠오에스북부(대표 김성인, 이하 'KTMOS북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의 주파수공급을 2월1일 완료했으며, 이번 주파수 공급은 모두 기존 사업자들로 4.7㎒대역 100㎒폭으로 서비스 지역을 추가 확장하거나 기존 서비스 지역에 영역을 넓혀 이음5G 본격 확산한 것에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G 지원포털 개시를 통해 유관기관, 이음5G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 홍보·지원의 구심체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는 유관기관과 밀접히 연계하여 국내외 우수사례 전파,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민·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충북도, ㈜심텍 청주일반산단 증설 투자협약 체결

충청북도는 2월 1일 도청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심텍 간 청주일반산업단지 내 ㈜심텍 공장에 대한 시스템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PCB) 대규모 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김영구 ㈜심텍 대표이사가 참석.체결했으며 '25년까지 미세회로공법(MSAP)을 이용한 차세대 인쇄회로기판 제조설비 증설 투자와 충청북도 및 청주시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증설 투자를 결정한 ㈜심텍은 1987년 설립된 충북의 대표 향토기업으로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10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인쇄회로기판 분야의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다.

최근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쇄회로기판 분야 역시 '22. 4분기부터 실적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4분기부터 급격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겹쳐 메모리 분야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23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업황 악화에도 ㈜심텍은 시스템반도체용 PCB 제조설비 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타깃팅과 최첨단 기술을 융합한 제조공정 혁신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심텍 김영구 대표이사는 "㈜심텍은 올해 초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청주 제9공장을 완공했으며, 글로벌 리딩 고객의 확대되는 시스템반도체 수요 대응을 위해, '25년까지 청주 제9공장에 제조설비를 추가 투자하여 최첨단 랜드마크 공장을 완성할 예정이다"라며,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감사드리며, 충북의 향토기업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 발전하고 사회적 가치를 환원하는 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충북의 향토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PCB 점유율 1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투자협약이 그 자리를 굳건하게 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하고 지역 인재 고용 및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최민호 시장 "자족경제도시 도약, 기업과 함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최 시장은 1일 소정면 첨단일반산단에 소재한 ㈜신신제약 생산시설을 방문해 첨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기 ㈜신신제약 대표, 오두환 ㈜싸이텍 대표, 양희준 ㈜클레슨 대표 등 16명의 기업대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지역 경제여건과 기업지원 시책을 점검하고 관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올해 세종시 경제여건, 주요업무계획, 기업지원 시책을 설명하고 이어 기업들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관계자들은 첨단산단이 세종시 북부 상단에 위치해 교통이 불편하고 이에 따라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통대책 마련과 시설·설비 투자금 지원, 제설작업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대중교통 확보와 노선 수정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설비투자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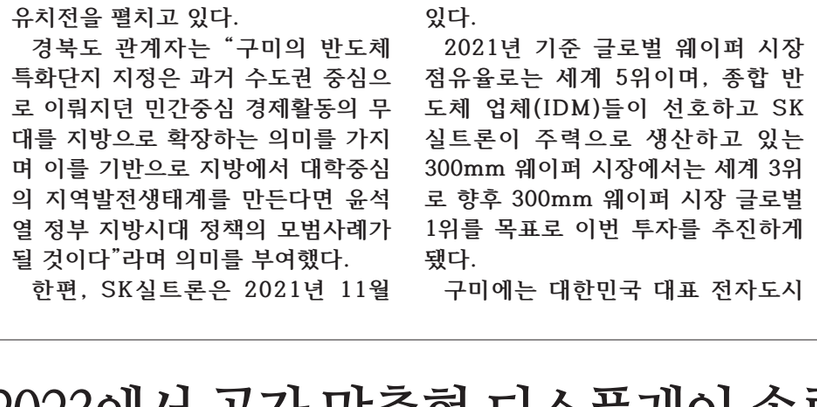
최 시장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내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미래전략수도 완성은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업단지별 현장간담회를 지속 이어갈 예정이며, 대기업, 중견기업 등 규모별로, 창업, 기업유치, 미래전략산업 등 주제별로 기업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SK실트론, 경북도 지방교육혁신정책에 통큰 투자

SK실트론 경북 구미에 1조 2360억원 투자



SK실트론이 작년 3월 1조원 투자에 이어 이번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경북도와 구미시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일 구미 SK실트론 본사에서 이철우 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장용호 SK실트론 사장이 실리콘반도체 웨이퍼 제조설비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1.2조원대 투자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SK실트론의 이번 투자는 작년 1조원 투자의 연장선상으로 구미국가산업 3단지 내에 1조 236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만 2,716㎡(12,920평) 부지에 총 2.3조원을 들여 300mm(12인치)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를 증설해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이번 투자는 정부와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방교육혁신을 통한 인재공급 체계'에 대한 산업계의 화답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기업의 투자결정 단계에서부터 대학과 협력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공장이 준공될 시점에는 필요인력을 공급하고 그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해 준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3월에도 이철우 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에게 구미 5산단에 SK의 반도체 투자를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SK실트론의 투자로 이달 27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는 '구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타면제에 대한 특례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각종 세액공제와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돼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정치권까지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투자입지 확보 그리고 지역주도 인재양성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과거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던 민간중심 경제활동의 무대를 지방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를 기반으로 지방에서 대학중심의 지역발전생태계를 만든다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SK실트론은 2021년 11월 1900억원을 들여 구미 국가산업 2단지 내에 차세대 전력반도체로 각광받고 있는 SiC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 증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작년 3월 1조원 투자와 이번 1조 2360억원 대규모 투자협약을 통해 구미를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하려는 구미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웨이퍼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SK실트론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2022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기술력으로 300mm(12인치)와 200mm(8인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글로벌 웨이퍼 시장 점유율로는 세계 5위이며, 종합 반도체 업체(IDM)들이 선호하고 SK실트론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300mm 웨이퍼 시장에서는 세계 3위로 향후 300mm 웨이퍼 시장 글로벌 1위를 목표로 이번 투자를 추진하게 됐다.

구미에는 대한민국 대표 전자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반도체 기업들이 집중 위치하고 있다.

SK실트론을 필두로 LG이노텍, 매그나칩반도체, 웰덱스, 원익큐엔씨, 쿠어스텍코리아, KEC, 코마테크놀로지 등 다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소재하고 있어 향후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한편, LG이노텍도 1.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투자로 인해 대한민국의 전자산업을 태동시켰던 구미가 다시 한 번 첨단소재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전력을 다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지역에 집중 유치해 K-반도체 벨트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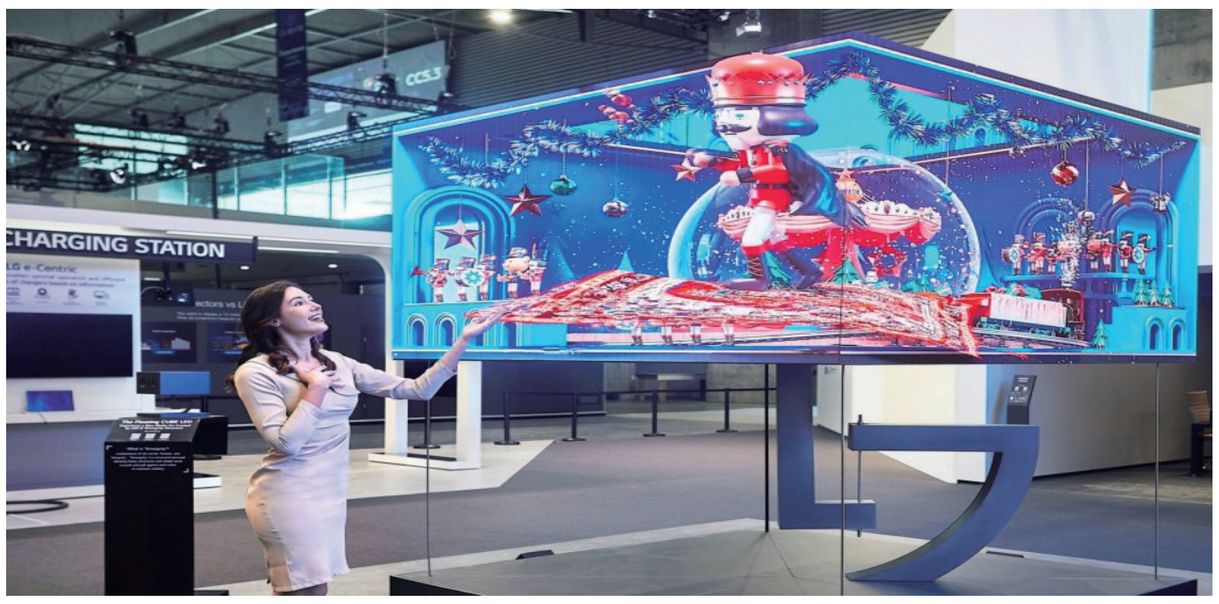
이날 투자협약식에 앞서 구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중기부, 고용부 장관 등도 함께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지방시대를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경북도의 정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반도체 전문인력 2만명 양성계획을 발표했고, 금오공대는 SK실트론과 협약을 통해 인재를 공급하고, 구미전자공고는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로 발전시켜 기업에게 현장인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근수/기자

LG전자, ISE 2023에서 공간 맞춤형 디스플레이 솔루션 선보인다

LG전자가 현지시간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3에 참가한다.



LG전자는 1,184제곱미터(㎡) 규모 전시관을 호텔, 매장, 오피스, 학교, 버추얼 스튜디오, 전기차 충전소, 병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해 공간별 맞춤형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소개한다.

LG전자는 전시관 입구에 8K(7,680×4,320) 해상도의 272형(대각선 길이 약 6.9미터)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LG 매그니트(MAGNIT)'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LG전자가 8K 해상도의 마이크로 LED를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형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自發光) 디스플레이 특유의 몰입감 있는 화질이 장점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8K 해상도로 생생하게 전달해 관람객은 마치 눈앞에 자연이 펼쳐진 듯한 압도적인 초대형 시청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전시관 입구 양쪽 외벽에는 55형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 약 60대를 이어 붙여 대형 비디오월(Video Wall)을 조성했다. 선명한 올레드 화질로 미디어아트 작품은 물론, 마치 벽이 사라진 것처럼 화면 너머 전시관도 볼 수 있다.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는 예술 작품 전시는 물론, 호텔 체크인 카운터, 매장 상담부스 등 고객 상호작용이 중요한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LG전자가 현지시간 31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3에 참가해 공간별 맞춤형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 모델이 착시 효과를 주는 아나몰픽(Anamorphic) 미디어아트를 실감나게 구현한 큐브 형태의 LED 사이니지 조형물을 감상하고 있다.

플로팅(Floating) 큐브 LED 사이니지 조형물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형태로 조성돼 관람객에게 이색 즐거움을 제공한다. 90° 코너 설계를 적용한 큐브 형태의 사이니지는 아나몰픽(Anamorphic, 착시를 통해 입체감을 극대화하는 기법) 미디어아트를 실감나게 구현한다.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체험 공간에서는 전문 장비 업체와 협업해 사이니지로 구현한 가상 배경 앞에서 배우의 연기를 동시에 촬영하는 차세대 콘텐츠 제작 기법을 경험할 수 있다. 처음 선보이는 LG 버추얼 프로덕션용 LED 사이니지는 뛰어난 화질과 다양한 공간에 설치 가능한 디자인 유연성 등을 기반으로 실제 현장과 같은 배경을 구현한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시 공간에서는 고휘도 사이니지와 전용 관제시스템 등을 통해 충전기 상태 및 실시간 충전 현황을 모니터링 하거나 사이니지 원격 제어 및 진단 등 통합 관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가 현지시간 31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3에 참가해 공간별 맞춤형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 모델이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체험 공간 내 사이니지로 구현한 가상 배경 앞에서 배우의 연기를 동시에 촬영하는 차세대 콘텐츠 제작 기법을 경험하고 있다.

LG전자는 교육, 원격회진, 화상회의, 통합관제 등 각 공간 콘셉트에 맞춘 다양한 솔루션도 함께 소개한다. 특히 전시관 곳곳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관리 솔루션을 통해 설치된 사이니지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거나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디스플레이 밝기 제어 등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을 위한 ESG 비전을 담은 ESG존도 운영한다. ▲저시력자를 위한 촉각 키패드 및 음성 안내 등 접근성을 강화한 키오스크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고화질 사이니지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을 선보인다.

한편 LG전자는 전시 현장의 영상과 이미지 등을 활용해 제품과 솔루션을 설명해주는 콘텐츠도 LG전자 디지털 사이니지 글로벌 홈페이지(www.lg-informationdisplay.com/ise2023)에서 제공한다.

LG전자 ID사업부장 백기문 전무는 "다양한 비즈니스 공간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혁신 디스플레이 제품은 물론, 최적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공간 경험과 새로운 일상의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외비' 조진웅 캐릭터 스틸 2종 공개! 내추럴 본 열연을 확인하라!

대한민국 대표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과 끝까지 예측불허한 전개로 기대를 모으는 범죄드라마 '대외비'가 만년 국회의원 후보 '해웅'으로 분한 조진웅의 캐릭터 스틸을 공개했다.

[제공/배급: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 제작: ㈜트윈필름, ㈜비에이엔터테인먼트 | 감독: 이원태 | 출연: 조진웅, 이성민, 김무열]

영화 '대외비'에서 밑바닥 정치 인생을 끝내고 싶은 만년 국회의원 후보 '해웅'으로 분한 조진웅이 양가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 '해웅' 캐릭터를 통해 강렬한 열연을 펼칠 전망이다.

영화 '대외비'는 1992년 부산, 만년 국회의원 후보 해웅과 정치판의 숨은 실세 순태, 행동파 조폭 필도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비밀 문서를 손에 쥐고 판을 뒤집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범죄드라마다.

드라마 [시그널], 영화 '끝까지 간다', '아가씨', '독전', '공작' , '완벽한 타인', '경관의 피' 등 매 출연작마다 굵직한 연기력으로 맡은 캐릭터를 생생하게 표현해낸 조진웅은 자타공인 캐릭터 달인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설 틈 없이 연기 변신을 거듭해온 조진웅은 '대외비'에서 인물 '해웅'으로 분해 정점에 오른 '내추럴 본' 연기로 관객들을 다시 한 번 놀라게 할 전망이다.

이번 영화에서 금뱃지를 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만년 국회의원 후보 '해웅'을 완벽하게 그려낸 조진웅은 '해웅'을 통해 집요함과 치열함의 끝을 선보인다.

더불어 조진웅의 뜨거운 에너지가 가득 담긴 '해웅'이 숨겨진 권력 실세 '순태' 역의 이성민과 격렬한 대립을, 행동파 조폭 '필도' 역의 김무열과는 대외비 문서로 엮인 불안한 관계를 맺으며 점차 변모하는 과정은 조진웅의 천부적인 연기력으로 표현되어 관객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린다. "인간적인 면과 무서운 면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양가적인 캐릭터가 '해웅'이다.

감정의 진폭이 큰 캐릭터를 소화할 배우로 조진웅밖에 떠오르지 않았다"는 이원태 감독의 말처럼 조진웅은 권력을 향해 치닫는 '해웅'의 세밀한 감정 변화와 한순간에 폭발하는 연기 텐션, 귀에 감기는 부산 사투리로 캐릭터의 모든 요소를 빈틈없이 스크린에 채우며 지금껏 본 적 없는 '내추럴 본' 열연을 펼칠 전망이다.

캐릭터와 혼연일치된 조진웅의 내추럴 본 연기로 기대를 모으는 예측불허 범죄드라마 '대외비 '는 3월 극장에서 개봉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미씽2', 최고 시청률 8.9%! 자체 최고 경신! '유종의 미'

tvN '미씽: 그들이 있었다2'가 마지막까지 실종자들과 남겨진 이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웜톤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가득 채우며 지난달 31일(화) 종영했다.

tvN 월화드라마 '미씽: 그들이 있었다2'(연출 민연홍 이예림/극본 반기리 정소영/기획 스튜디오 드래곤/제작 메이스엔터테인먼트 두프레임/이하 '미씽2')가 지난 1월 31일(화) 14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최종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6.5%, 최고 8.9%, 전국 가구 기준 평균 5.9%, 최고 7.7%로,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과 함께 케이블과 종편 포함 동 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 또한 수도권 평균 2.7%, 최고 3.5%, 전국 평균 2.8%, 최고 3.6%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 시간대 1위를 차지, 유종의 미를 거뒀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

'미씽2' 14회에서는 영혼 마을 3공단의 터줏대감 강선장(이정은 분)의 죽음 속 진실이 모두 드러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강선장이 가족처럼 믿은 노부부의 남편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그를 살해한 후 냉동창고에 숨겼고, 이를 모른 노부부의 아내가 그물에 걸려있던 강선장의 신체 일부를 바다에 빠트렸던 것.

이로 인해 온전한 육신을 찾지 못한 강선장의 영혼은 승화되지 못했고, 배신감과 억울함에 울분을 토해내는 그의 모습이 시청자들까지 울컥하게 했다. 반면 3공단의 교장 정영진(정은표 분)은 장판석(허준호 분)의 도움으로 육신을 찾고 영혼 승화돼 먹먹함을 선사했다.

한편 김욱(고수 분), 장판석, 이종아(안소희 분)는 마약 조직의 배후이자 김욱의 모친 김현미(강말금 분) 살해범인 노윤구(김태우 분) 체포에 돌입했다.

노윤구가 오일용(김동휘 분)이 감춘 마약을 찾기 위해 그를 납치하자, 삼총사는 미리 붙여둔 위치추적기를 활용해 무사히 구해냈다. 이어 신준호(하준 분)는 노윤구가 출국하기 직전 체포에 성공해 짜릿함을 선사했다.

이후 오일용은 마약 조직에 가담했던 모든 죄를 자수하고 수감됐지만, 노윤구는 호송 도중 도주해 분노를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방송 말미에는 남겨진 이들의 면면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장판석은 17년만에 꿈속에 나타난 딸 현지(이효비 분)와 3공단 아이들을 모두 찾아주겠다고 약속하며 포옹해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이어 엔딩에서는 실종아동캠페인을 시작하며 실종 영혼의 물건을 보고 만지게 된 이종아, 길거리에서 마주친 실종 영혼을 쫓아가는 장판석, 또 다른 영혼 마을로 들어가는 듯한 김욱의 면면과 함께 김욱의 꿈속에 나온 회전목마 앞에서 환영인사를 전하는 호스트(임시완 분)의 모습이 담겨 어딘가에 있을 새로운 영혼 마을 주민들을 위해 활약할 이들의 앞날을 예상케 했다. 동시에 "생사도 모른 채 세상의 관심 밖으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끝내 잊지 않기를"이라는 김욱, 장판석, 이종아, 신준호의 내레이션이 마지막까지 가슴 속 깊이 뭉클한 여운을 전파했다.

이처럼 '미씽2'는 올 겨울, 가슴 뭉클한 휴먼 스토리부터 심장 쫄깃해지는 반전까지 모두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했다. 이에 웰메이드 웜톤 드라마 '미씽2'가 남긴 것을 정리해본다.

#1.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으로 이어진 주제 의식

'미씽2'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라진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의 간절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큼 시작부터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을 병행해왔다.

이에 매회 방송 말미에는 실종아동찾기 캠페인 멘트가 온에어됐고, 온라인 예고 뒤는 실종아동정보가 담겼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는 실종아동정보와 함께 실종아동찾기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유전자 검사 제도까지 소개돼 이목을 끌었다.

더욱이 '미씽2'의 배우들과 실종아동 가족이 함께한 캠페인 영상은 남겨진 가족들이 느끼는 아픔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만들었다.

이 같은 제작진의 노력은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실제 실종아동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만들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모았다.

#2. '영혼 보는 콤비' 고수-허준호의 믿보 브로맨스 진가

'미씽2'에서 '영혼 보는 콤비' 고수, 허준호의 믿고 보는 브로맨스가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고수는 정의로운 생계형 사기꾼 '김욱'으로 분해 유쾌하고 능청스러운 매력을 풍겨낸 동시에 실종 영혼들의 죽음에 얽힌 진실과 마주하게 된 복잡다단한 감정을 시시각각 변하는 눈빛과 표정 등으로 디테일하게 담아내며 몰입도를 높였다. 허준호는 여전히 딸을 그리워하는 '장판석' 역을 맡아 따스하고 인자한 매력을 뿜어내며 그야말로 명품 열연을 펼쳤다.

특히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터트린 허준호의 부성애 품은 오열 연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저미게 만들었을 정도. 무엇보다 함께했을 때 더욱 폭발적인 시너지를 뿜어내는 고수, 허준호의 케미스트리는 시청자들을 끌어당기기 충분했다.

두 사람은 두 번째 만남인 만큼 서로의 눈빛만 봐도 손발 척척 맞는 호흡과 진정성 넘치는 열연으로 때로는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며 찰진 브로맨스를 다시금 느끼게 했다.

#3. 안소희-하준→이정은-김동휘, 모두가 빛난 인생 연기 열전

고수, 허준호와 함께 이정은, 안소희, 김동휘, 하준을 비롯한 모든 출연진들이 인생 연기를 펼쳤다. 이정은은 영혼 마을 3공단의 터줏대감 '강은실' 역을 맡아 귀여운 요정 비주얼로 눈길을 끈 한편, 3공단 사람들을 진심으로 챙기는 정 많은 이웃집 이모 같은 매력으로 따스함을 선사했다.

안소희는 김욱, 장판석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브레인 '이종아'로 분해 똑부러지는 매력을 발산하며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런가 하면 3공단 미스터리의 중심 '오일용'으로 분한 김동휘는 드라마 첫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출중한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

뿐만 아니라 하준은 실종전담반 꼴통 형사 '신준호' 역을 맡아 몸 사리지 않는 열혈 본능과 인간미 넘치는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에 더해 정은표(정영진 역), 권아름(양은희 역), 윤지원(안혜주 역), 김서헌(최하윤 역), 이천무(이영림 역), 김하언(이로하 역), 김태연(앨리스 역) 등 영혼 마을 3공단 주민들을 비롯해 지대한(실종전담반 팀장 백일두 역), 김건호(마약반 팀장 이만식 역), 송건희(토마스 역), 최명빈(문보라 역), 임선우(문세영 역) 등 모든 배우들의 열연이 극을 풍성하게 채우며 시선을 떼지 못하게 했다.

#4. 자극 없이도 빠져드는 휴머니즘의 힘

'미씽2'는 실종된 망자들의 사연과 그들을 그리워하는 남은 이들의 휴먼 스토리를 담아내며 자극 없이도 빠져드는 휴머니즘의 힘을 느끼게 했다.

특히 20년만에 실종된 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된 엄마, 생사가 갈린 후에야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남매,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된 모친을 태운 앰뷸런스를 쫓아가기 위해 달리기 1등을 꿈꾼 어린이 등 주위에서 일어날 법한 실종 영혼들의 사연은 공감과 눈물을 자아내며 주변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나아가 사라진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한을 풀어주기 위해 진심을 다하는 김욱, 장판석, 강선장, 이종아, 오일용, 신준호의 활약이 안방 가득 힐링을 선사하며 가슴을 따스하게 덥혔다.

이처럼 '미씽2'는 고수, 허준호, 이정은, 안소희, 김동휘, 하준을 비롯한 모든 배우들의 열연과 진정성 담은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에 뜨거운 울림을 남기며 화제 속에 막을 내렸다.

한편 tvN '미씽: 그들이 있었다2'는 사라진 사람들, 새로운 영혼 마을, 그들의 간절함에 오지랖 재발동한 '영혼 보는 콤비'의 판타지 추적극. 지난 1월 31일(화) 14회 방송을 끝으로 종영했다.

정동희/기자

新 예능 '신병캠프' 장동민 X 최영재 X 신병즈, '군기 바짝' 메인 포스터 공개!

장삐쭈 원작 화제 드라마 '신병'의 예능 스핀오프인 ENA '신병캠프'가 메인 포스터를 공개, 지옥의 신병훈련소로 시청자를 초대한다.

오는 2월 6일(월) 저녁 8시 30분에 첫 방송 예정인 ENA 신 예능 '신병캠프'(연출 민진기 남예은)는 누적 조회수 2억 5천만 뷰에 달하는 메가 히트 웹 애니메이션인 장삐쭈의 '신병'을 원작으로 한 화제의 드라마 '신병'의 예능 스핀오프이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레전드 군대 콘텐츠의 세계관을 통합하는 군예능 대통합 프로젝트. 드라마 '신병'을 연출한 민진기 감독과 '신병즈' 차영남-이충구-김민호-이정현-남태우-전승훈-이상진-김현규가 다시 뭉쳤고, 장동민과 최영재가 MC로 가세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계급장을 떼고 훈련소에 재입소한 '신병즈'는 '푸른거탑', '가짜사나이', '강철부대' 등 군대 예능의 아이콘들과 맞대결을 벌이며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신병캠프' 측이 공개한 메인 포스터에는 군기가 바짝 들어간 출연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흥미를 치솟게 만든다.

먼저 '신병캠프'에서 중대장으로서 '신병즈'를 이끌어갈 장동민은 포스터 정중앙에서 근엄한 아우라를 드러내며 시선을 강탈하고, 호랑이 교관으로 활약할 최영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철함을 뽐낸다.

이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은 지휘관 포스를 뿜어내는 장동민-최영재의 모습이 '신병즈' 차영남-이충구-김민호-이정현-남태우-전승훈-이상진-김현규의 녹록지 않은 앞날을 예고하는 듯하다.

그런가 하면 장동민과 최영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 김민호-남태우-전승훈-이상진과 이정현-차영남-김현규-이충구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꼿꼿이 각 잡힌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신병 특유의 당찬 패기가 느껴지는 것. 이에 장동민-최영재의 진두지휘하에 용맹한 신병으로 거듭나 '강철부대', '가짜사나이', '푸른거탑' 등 군대 레전드들과 화끈한 맞대결을 펼칠 '신병즈'의 활약에 기대감이 고조된다.

또한 '신병캠프'가 군 시절 추억을 소환할 것이다. 훈련소 입소부터 내무생활의 추억까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모두의 '신병'이었던 시간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다.

나아가 신병즈 멤버들의 케미스트리도 기대해달라. 배우로서는 신인이거나 중고 신인들이지만 누구보다 치열한 삶의 주인공들인 신병즈가 서로를 보듬고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드라마 밖 배우들의 진정성과 매력을 느낄 수 있으실 것"이라고 시청 포인트를 전했다.

군대 콘텐츠계의 GOAT(Greatest Of All Time) 드라마 '신병'의 스핀오프이자 군예능 대통합 프로젝트 ENA 채널 '신병캠프'는 오는 2월 6일(월) 저녁 8시 30분에 ENA채널에서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불타는 트롯맨', 오는 4월 전국투어 돌입. 일본, 태국, 미국등 월드투어까지. "K-트롯, 전세계에 알리겠다"

MBN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이 국내투어와 월드투어 콘서트를 개최하며 K-트롯을 전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MBN '불타는 트롯맨'이 K-트롯을 전세계에 알리는 선봉장을 선언했다. '불타는 트롯맨'은 오는 4월 29, 30일 올림픽공원 내 KSPO DOME에서 서울 공연을 개최하며 이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산, 대구, 광주, 고양, 대전, 청주 등 전국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국내투어에 돌입한다.

또한, 국내투어가 종료되면 2023년 하반기 일본과 태국,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투어와 2024년 상반기 LA, 뉴욕, 캐나다, 시드니 등 전 세계에 'K-트롯'의 위력을 보여 줄 월드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불타는 트롯맨'이 최근 일본 TV 'ABEMA' 방영까지 확정한 만큼, 국내외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불타는 트롯맨' 월드투어 콘서트는 트롯공연 사상 최대 규모의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연일 매진을 기록중인 아이돌들의 K-POP콘서트와는 색다른 매력으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또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불타는 트롯맨'의 월드투어 콘서트는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트롯', '싱어게인' 콘서트 등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해 흥행시킨 경험이 있는 쇼플레이와 '불타는 트롯맨' 제작사인 크레아가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트로트 장르의 첫 월드투어 콘서트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번 '불타는 트롯맨' 월드투어 콘서트에 참여할 출연자들은 경연이 종료된 후 확정되며 K-트롯을 전세계에 알릴 주인공이 될 출연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불타는 트롯맨'은 오는 4월 올림픽공원 내 KSPO DOME에서 개최되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국내투어와 월드투어를 앞두고 있으며, '불타는 트롯맨'은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40분 MBN에서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판도라 : 조작된 낙원, '위태로운 균열' 이지아, 귀 크랙 포스터 공개! 김순옥 사단이 보여줄 복수극의 신세계

'판도라 : 조작된 낙원' 이지아의 완벽한 삶에 위태로운 균열이 생긴다.

오는 3월 11일(토)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판도라 : 조작된 낙원'(크리에이터 김순옥, 연출 최영훈, 극본 현지민,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초록뱀미디어) 측은 오늘(1일), 의미심장한 '귀 크랙' 포스터를 공개하며 궁금증을 유발했다.

'판도라 : 조작된 낙원'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여성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멋대로 조작한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 펼치는 복수극이다. '원더우먼' '굿캐스팅' 등에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최영훈 감독과 시청률 보증수표 김순옥 사단의 현지민 작가가 뭉쳤다.

여기에 '펜트하우스' '황후의 품격' '아내의 유혹' 등을 집필한 흥행메이커 김순옥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한층 진화한 복수극을 완성한다. 이지아, 이상윤, 장희진, 박기웅, 봉태규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의 시너지 역시 차원이 다른 복수극을 기대케 한다.

홍태라(이지아 분)의 핏빛 복수를 알리는 티저 영상과 포스터가 화제를 불러모은 가운데, 이날 공개된 '귀 크랙' 포스터 역시 호기심을 자극한다. 홍태라는 비밀을 머금고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

건조한 눈빛 너머에 숨긴 격한 슬픔과 매서운 분노, 그리고 결연한 의지는 처절한 복수를 예고한다.

찢어진 귓가는 그의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균열을 암시하듯 아슬아슬하다. 특히 '나의 완벽한 삶은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라는 문구가 궁금증을 더한다. 과연 홍태라의 삶을 이토록 흔드는 진실이 무엇일지, 되살아난 기억 속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진다.

이지아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홍태라를 통해 '복수의 화신'으로 변모한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된 홍태라. 나락에 빠뜨린 배후를 찾아 응징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내던진다. 처절한 복수를 완성할 이지아의 열연에 뜨거운 기대가 쏠린다.

tvN '판도라 : 조작된 낙원' 제작진은 "자신의 완벽한 삶이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여자의 과거 추적 복수극이 짜릿하게 펼쳐진다. 치밀한 심리전부터 다이내믹한 액션 연기까지, 이지아의 색다른 변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tvN 새 토일드라마 '판도라 : 조작된 낙원'은 오는 3월 11일(토) 밤 9시 10분 첫 방송된다.

황지원/기자

경기도 특사경, 올해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22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4개 단지 부정청약 집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에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동해시, 불법 공유숙박 집중단속 통해 3곳 적발

단독주택 2곳, 무허가 건축물 1곳으로 불법 숙박업 운영한 A씨 적발

동해시가 숙박업소의 공정성 확보와 관광객 보호를 위해 신고 없이 운영하는 불법 공유숙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기본과 원칙의 신뢰행정을 지속하며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번 단속은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미신고 불법 영업을 하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연중 진행되며, 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단독주택을 위주로 단속을 시작하여 3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9월경 공유 숙박플랫폼 모니터링 중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총 3곳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A씨에게 온라인 대화 기능으로 단속 예고를 했으나, 영업을 지속하자 단속을 통해 A씨가 소유하고 있는 2곳의 단독주택과 1곳의 무허가 주택에서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시는 공중위생관리법 근거로 A씨를 이달 중 형사고발 예정이며, 고발 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여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영업 중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설비를 갖추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전북도, 스키장·눈썰매장 음식 위생 집중단속

겨울 스포츠 이용 증가에 따른 스키장 내 음식점 등 집중단속 실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내 식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위생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스키장과 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70여 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등이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대상 업소 외 시설 주변의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겨울철 식중독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에서도 생존하며,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이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며,"겨울철에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정읍시,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개발행위 근절 나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집중 단속 예고

정읍시가 올해 무질서한 난개발을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행위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난개발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단속 전담반은 감사과장을 총괄로 2개 팀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포장(콘크리트 포장, 쇄석포설 등),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또는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허가신청과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가설건축물 축조 또는 용도 변경한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이와 함께 허가 없이 농지를 무단 전용하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경우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많은 시민이 관련 법령을 인지해 불법 개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4개 업체(538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단속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 소재 판매업체) 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위반물량 6,730kg, 위반금액 1,685만 원)

◆ (전남 나주시 소재 판매업체) 호주산 쇠고기 갈비 선물용품을 포장·판매하면서 쇠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위반물량 13kg / 위반금액 42만 원) * 위반물량 추가조사 중

❑ 돼지고기

(경기 고양시 소재 판매업체) 업소에서 판매중인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항정살, 목살에 대해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 결과 캐나다산 삼겹살, 항정살, 목살로 확인(위반물량 500kg / 위반금액 1,250만원)→ 형사입건

❑ 쌀

(경남 김해시 소재 가공업체) 중국산 쌀로 만든 쌀강정·찐쌀강정을 제조·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818kg, 532만원) → 형사입건

❑ 제수용품(반찬류)

(강원 동해시 소재 가공업체) 온라인쇼핑몰 OO마켓에서 중국산 삶은 고사리, 깐도라지, 숙주나물로 제조한 제수용품(고사리 무침, 도라지 무침, 숙주나물 무침)을 판매하면서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0kg / 20만원) → 형사입건 및 추가조사

❑ 곶감

(부산광역시 소재 유통업체) 업소에서 중국산 곶감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곶감의 원산지를 강원도, 영동으로 말하며 위장판매(위반물량 400kg / 위반금액 1,200만원) → 형사입건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 (1회 위반으로 공표 대상 아님)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지아/기자

포항시, 불법 광고 잡는 '자동전화폭탄'으로 도시미관 개선 '톡톡'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에 총력

포항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일명 '자동전화폭탄'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 및 명함형 전단지, 벽보 등에 표기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일정 간격(20분, 10분, 등) 기준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연속 발신함으로써,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전해 자발적으로 불법을 멈추도록 계도한다.

그동안 포항시는 수거보상제, 노인 일자리, 불법 광고 정비반 등을 활용해 성매매, 아파트 분양 현수막, 불법대부업 명함형 광고 등을 단속해 왔지만, 야간에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한 이후 업주의 불법행위 인식 등 의식개선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도시미관 개선에 톡톡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945건의 현수막,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병준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난해 불법 광고물 우수 신고자 표창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 데 이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을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 강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2023년 실학박물관 입춘 맞이 행사 "봄의 시작을 함께해요"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정성희)에서는 2023년 새해 첫째 절기인 입춘(2월 4일)을 맞아 꽃씨와 채소 씨앗을 무료로 나눠주는 "봄의 시작을 함께해요" 행사를 진행한다. 특별 봄맞이 행사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농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실학자들의 뜻을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예로부터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이자 농사의 기준이 되는 24절기의 첫째 절기로서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여러 농경의례 관련 민속행사가 행해졌다.

또한 실학자들은 농경서인 '색경'을 지은 박세당, '임원경제지'를 지은 서유구, 직접 텃밭을 가꾸고 유배지에서도 두 아들에게 부지런히 텃밭 가꾸기를 당부했던 정약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일에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벤트에 참여하여 받은 씨앗을 직접 가정에서 심고 키우며 생명력을 몸소 체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실학'을 직접 경험하며 일상생활 속 실용을 강조한 실학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준비한 씨앗은 정약용이 특별히 사랑했던 꽃인 국화와 실용적이고 상품 가치가 높아 재배를 장려했던 목화, 그리고 가정에서 키우기 쉬운 상추와 시금치 등 봄에 파종할 수 있는 식물들이다.

입춘맞이 '봄의 시작을 함께해요' 행사는 2023년 2월 4일과 2월 5일 이틀간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실학박물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일일 선착순 100명으로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실학박물관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정월대보름, 순천 낙안읍성으로 오세요

달집태우기 보며 소원을 비세요

순천 낙안읍성은 오는 5일 계묘년 '2023 순천 낙안읍성 정월대보름 행사'를 열며 당일 무료로 읍성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김빈길장군 추모제를 시작으로 오후 2시 임경업장군 추모제와 당산제를 지내며, 인절미·떡국 나눔, 전통 공연이 이어지고 오후 5시30분부터 횃불 들고 성곽돌기, 달집 태우기 순서로 진행된다.

횃불 들고 성곽돌기는 당일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이후 달집태우기는 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찾은 방문객이 쓴 소원지를 태우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함께 개인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다.

특히, 정월대보름날 음식을 서로 바꿔 먹었던 옛 추억과 순천 낙안읍성을 찾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나눔행사와 전통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나눔은 사단법인 낙안읍성보존회, 낙안면행사추진위원회, 낙안면이장단협의회, 낙안면부녀회, 사단법인 낙안읍성판소리보존회, 사단법인 낙안읍성가야금병창보존회 등 낙안읍성과 낙안면 주민들이 함께 마련했다.

놀이마당에서는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고, 오후 1시부터 낙안면 마을 대항 윷놀이대회를 개최하여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또한 읍성 내 6개소 초가집에서 대장간, 짚물공예, 염색, 국악, 서각 등 전통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월대보름 행사를 통해 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수/기자

세종시, 정월대보름은 이응다리에서 전통놀이와 함께

전통 명절 정월대보름, 이응다리(금강보행교) 일대에서 전통놀이·문화체험을 위한 마당이 펼쳐진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오는 2월 4일 이응다리 일대에서 '2023년 정월대보름 맞이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세종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 모두가 전통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떠올리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가족 단위 체험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16시 안녕과 풍작,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민속놀이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쥐불놀이 등 체험마당이 진행된다.

저녁에는 발광진공관(LED) 쥐불놀이 체험행사가 열리고 풍물, 민요, 강강술래가 어우러진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연날리기는 전문가를 초빙해 대형연과 줄연 날리기 시연을 보여줄 예정이며, 약 250여 개의 연을 준비해 방문한 시민들에게 직접 연날리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창철 문화원장은 "이번 행사는 금강보행교에서 열리는 최초의 전통문화행사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둥근 보름달과 꼭 닮은 금강보행교에서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전통문화 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세종문화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금강보행교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충남도, '서해의 아름다움' 드론으로 담는다

충남도가 '하늘에서 바라본 서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드론 영상·사진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아름다운 갯벌, 섬, 어촌, 어항, 해안선 등을 담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드론 영상·사진을 발굴하고자 추진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도 누리집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도는 드론 영상·사진 관련 전문가를 구성해 10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영상 5편, 사진 15편 등 총 21편을 선정해 총상금 1000만 원 규모로 시상할 계획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수상작은 앞으로 충남 서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영암군, "농촌마을 이야기 들려줄 동네작가" 모집

2월10일까지 귀농·귀촌인 대상 모집, 건당 5만원 지원

영암군은 귀농·귀촌을 홍보하고 마을과 농촌에서의 생활 모습을 그려나갈 '동네작가'를 오는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타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운영자나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우선 선발한다.

'동네작가'로 선정되면 마을소개, 공동체 활동, 귀농·귀촌 성공사례, 지역문화·관광지, 주민행사 등과 관련된 사진 또는 영상이 포함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역할을 하며, 1인당 월 최대 10만원(5만원/건)의 활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월까지 활동하게 될 이번 '귀농·귀촌 동네작가'에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성현/기자

에버랜드, '놀고·먹고·쉬고' 겨울 힐링 여행

◇ 올 겨울,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힐링 여행 코스 추천
– 놀고… 댄스, 라이팅쇼, 불꽃쇼 등 공연 보고 신나게 눈썰매 체험
– 먹고… 붕세권(붕어빵+역세권) 인기! 따끈한 겨울 특선 메뉴 풍성
– 쉬고… 윈터 스파 캐비에서 이국적인 노천 스파 즐기며 물멍
◇ 캐리비안 베이 방문 당일 오후 3시부터 에버랜드 무료 이용

올 겨울 춥다고 웅크리고 있지만 말고 소중한 사람들과 신나게 놀고, 먹고, 쉬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가 겨울을 더 재미있고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힐링 여행 코스를 마련했다.

【 겨울 특별공연 보고, 눈썰매 타며 신나게 놀자! 】

□ 에버랜드는 겨울방학을 맞아 댄스파티, 포토타임, 불꽃쇼 등 누구나 함께 즐기기 좋은 겨울 특별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카니발 광장에서는 '런런런! 스노우 프렌즈' 공연이 매일 낮 2회씩 진행된다. 에버랜드 캐릭터인 레니와 친구들이 나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이엠 그라운드' 등 귀에 익숙한 노래에 맞춰 약 20분간 신나는 댄스 공연을 펼친다.

공연 중간에는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재미있는 춤 동작을 따라해보는 고객 참여 시간이 진행되고, 댄스 공연이 끝나면 캐릭터들과 포토타임도 진행돼 잊지 못할 추억사진을 남길 수 있다.

□ 에버랜드의 환상적인 겨울밤을 더욱 완벽하게 즐기고 싶다면 카니발 광장에서 펼쳐지는 '문라이트 포토파티'에 참여해보자.

'문라이트 포토파티'는 반짝이는 전구로 만든 달빛의상을 입은 요정 캐릭터들이 나와 약 20분간 신나는 댄스파티와 포토타임을 벌이는 공연인데, 문라이트 요정들과의 포토타임은 오직 겨울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포시즌스가든에서는 슈퍼주니어의 신곡 Celebrate(셀러브레이트)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뮤직라이팅쇼 '가든 오브 라이츠'와 수천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멀티미디어 불꽃쇼 '로맨스 인 더 스카이'도 펼쳐진다.

□ 또한 오직 겨울에만 경험할 수 있는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는 겨울철 최고의 놀이터다.

'스노우 버스터'는 스릴 강도별로 골라 탈 수 있는 3개 코스가 풀가동중이며, 모든 코스에 튜브이송대, 자동출발대 등이 설치돼 있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눈썰매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겨울철 에버랜드는 롤링엑스트레인, 더블락스핀 등 대부분의 야외 놀이기구가 정상 가동하고 있어 신나게 놀며 겨울 나들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 눈썰매장 붕세권(붕어빵+역세권) 인기! 겨울 특선 메뉴 풍성 】

□ 겨울 추위를 이겨내며 신나게 놀았다면 다음은 허기진 배를 따뜻하게 채울 차례! 에버랜드는 겨울축제 기간 동안 에버랜드를 보다 따뜻하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도록 겨울 특선 메뉴를 풍성하게 선보이고 있다.먼저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는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붕세권(붕어빵+역세권)에 합류했다.

팥, 슈크림, 크림치즈 등 다양한 맛의 붕어빵과 함께 국화빵, 어묵, 군고구마까지 다양한 겨울 간식을 선보이고 있는데, 간식 대기줄이 길게 이어질 정도로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또한 눈사람 꼬치어묵우동(알프스쿠체), 치즈뿌링치킨과 감자튀김(스낵버스터), 가든 플레이트(가든테라스) 등은 눈사람 테마 스페셜 메뉴로 맛은 물론, 보는 재미까지 더했다.

우삼겹 육개장 칼국수(알파인), 해물킹 짬뽕(차이나문), 사골쇠고기 국수반상(매직타임) 등 각 레스토랑별로 선보이고 있는 따끈한 셰프 특선 메뉴도 올 겨울 든든한 한 끼 식사로 꼭 맛봐야 할 별미다.

【 노천 스파에서 힐링하며 인스타 감성 사진 찰칵! 】

□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야외 스파에서 이색 겨울 물놀이를 즐기며 따끈하게 쉬고 싶다면 '윈터 스파 캐비'로 변신한 캐리비안 베이에 가보자.

캐리비안 베이는 올해 초 최상급 편백나무(히노끼)로 제작한 '어드벤처 스파'와 카리브 동굴 테마의 '케이브 스파'를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이국적인 풍경 속 프리미엄 노천 스파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양머리 수건을 쓴 거대한 해골 조형물은 물론, 이국적이고 몽환적인 포토존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MZ세대를 중심으로 물멍을 즐기며 감성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인증샷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풀이 따뜻하게 운영되고 있는 겨울 캐리비안 베이는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수풀, 파도풀,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시설도 모두 체험할 수 있어 올 겨울 힐링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꼭 가볼 만 하다.

□ 한편 캐리비안 베이를 방문한 개인 고객은 당일 오후 3시부터 에버랜드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1+1 고객감사 이벤트도 3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어 워터파크와 테마파크를 하루에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덕암칼럼] 2월의 첫날 어떤 일이

새해가 시작됐고 오늘부터는 2월이 시작됐다. 1월에 못다한 일들에 미련 갖지 말고 2월에는 사전에 준비한 일들을 모두 이루는 달이 되길 바란다. 2월에는 세계습지의 날, 한국 수어의 날, 여성할례 철폐의 날은 물론 맛있는 참치의 날과 건설노조에 대한 현주소, 사라진 잔치의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들이 태산처럼 많이 기다리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발발 1년이 되는 달이기도 하다. 사람 사는 세상은 이렇듯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며 때로는 전쟁도 지진이나 홍수도 나고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삶을 꾸려 가는 것이다. 시간과 날짜와 해를 기록하다 보면 느껴지는 감각 중 거미줄처럼 가늘게 와 닿는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판세를 읽게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기운이 가파른 하향곡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덕암 칼럼을 쓰려면 당일 작성한 원고 분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정성을 담아 정돈해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모든 분야의 현실을 맛볼 수 있는데 어느 한 분야라도 희망적인 느낌을 받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인구가 급격히 줄고 초고령 사회는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이 문제는 돈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난제다. 이제 20년 후면 지금의 권력자들이나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참혹한 천대를 받아가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처참한 생활을 해야 할지 불 보듯 뻔하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돈을 벌고 싶어도 벌 곳이 없는 상항에 직면하게 된다. 일부 어르신들이 연금을 타더라도 물가가 베네수엘라처럼 상승하면 어쩔 것이며, 거리마다 젊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다가올 것이다. 사람이 하던 일들의 절반을 기계가 대신하고 이에 순응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처분되어도 그리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 세 번째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인데 필자의 예상으로는 파지라도 주우려면 일회용이나 포장지가 지금처럼 제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협약으로 쓰레기 줄이기는 대세일 것이며 주울 파지도 사라질 것이다. 끝으로 이때쯤이면 빈 병이나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백발이 돼 머리채 잡고 싸우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럴 수 있는 배경에는 동물처럼 배만 부르고 배설만 하면 살 수 있는 이기적 개념이 절대적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원천적인 원인은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온갖 수당으로 인심을 얻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든 현금만 통장에 꽂히면 반가운 국민들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공범으로 반기기 때문이다.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아동수당, 농민수당, 연차수당, '수당'이란 정해진 급여 외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뜻한다. 영어로는 '보너스'라고도 하는데 받는 자는 받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당위성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며, 동일선상에 있는 자들이 그 수당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진대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났으며 누가 생색내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물론 국가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5일부터 약 25만 명이 부모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목적은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만 0세부터 11개월의 아동에게는 매월 70만원이 2022년 태어난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이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매월 51만 4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다. 보육수당, 부모수당이 과연 저출산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 돈에 용도까지 적혀 있지는 않아서 그 돈으로 PC방을 가든, 커피숍이나 골프장을 가든 알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순기능도 있겠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정책의 역기능도 고려하라는 의미다. 저출산의 요인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세워야지 이런 임시처방식의 탁상행정이 언제까지 되풀이 될 것인가. 만약 부모수당을 풀어도 저출산이 해결 안 되고 더 악화된다면 그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

사람의 도리, 즉 인륜이 바로 서야 예절과 위·아래가 있는 법이다. 부모수당, 보육수당을 남발할 것이라면 부모를 잘 모시는 자식에게 효도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어차피 힘든 일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수당에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이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돈만 주면 제 부모 모시는 것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이야 늙고 병들어 대·소변 받아내기가 거북하면 조선족이나 나이든 간병인이 대신 해주겠지만 앞으로도 그럴 인력이 남아 있을까. 통계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부모의 손발톱 깎아 주면 10만원, 목욕시키고 사진제출하면 10만원, 명절날 큰절하면 20만원, 함께 모시고 살면 매월 50만원, 마음을 열어 외롭지 않게 하면 100만원, 수당에 길들여진 현세대들이 과연 이런 미끼에 효도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틀니 대신 잇몸으로 고기조차 우물거리며 삼키는 미래는 현재의 권력자들에게 다가올 모습이다.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마다 빈집이 남아돌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 기형적 성장의 대한민국은 돌이킬 방법이 없다. 대안이 있을까, 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반듯하면 적시적소에 걸맞는 인재를 기용하여 혼을 살려야 한다. 아이들이 학대당하지 아니하고 소녀들이 성의 도구로 전락하지 말아야 하며 젊은이에게는 선명한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청년창업 어쩌고 하면서 빈 상가에 세금낭비해서 음식점 열어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모두 전시행정의 산물이며 제대로 성공한 사례도 없고 실패작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본적이 없다.

어느 정도 경륜을 쌓은 중년에게는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년에게는 연륜에 의한 삶의 철학과 도리를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풀 뽑고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깃발 드는 공공일자리는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삶을 더 처참하게 만들 뿐이다.

칼럼

에너지 빈곤층 '주먹구구 지원'과 몰라서 못 받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난 설 연휴 끝자락부터 빙점 아래 두 단위 숫자를 오르내리는 최강 한파가 엄습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 인상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라는 가구가 속출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불만과 한숨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대란'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지원금 상향과 도시가스 요금감면 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며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197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겨울철 거실 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일컫는다.

에너지 빈곤 기준은 " (에너지 구매비용 ÷ 가구소득) × 100 = 10% 이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건 2005년 경기도 광주에 살던 15세 여중생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2030년 에너지빈곤가구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난방비 대책으로 기존 에너지 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1,800억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월 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기존 9,000원~3만 6,000원(동절기 기준)에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2배 늘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160만 가구와 117만 6,000가구' 사이에는 상당 부분 중복 지원대상자가 존재할 뿐 아니라 아예 누락 되어버린 사례까지도 있다.

그야말로 실태조사가 미진하고 미흡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典型)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혜택을 늘려도 그런 제도가 있는 줄조차도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대상자 수 자체가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책정된 것이어서 사각지대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3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고 "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에너지 복지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요금 할인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41만 2,139가구로 나타났다. 2020년 71만 3,287가구, 2021년 36만 3,473가구로 '구멍'은 여전히 존재하고 꾸준하다.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도로 매년 9만 원씩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다.

2020년 4만 7,180가구, 2021년 5만 5,323가구가 신청 대상인데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만 2,220가구도 아직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세대원 기준으로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이 협소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모두 '수혜자 신청주의'로 운용되는 탓에,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드러난 '수혜자 신청주의' 복지 행정의 한계가 에너지 요금 할인제도에서도 적나라하게 노정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다양한 복지 제도가 끊임없이 도입됐지만, 그때마다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많은 수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 또는 누락 되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왔다.

정부의 홍보 노력이 부족한 데다 빈곤층일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거나 생활고 또는 장애에 시달려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빈곤을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신청 과정에서 심리적 상처를 받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요양·의료기관 장기 입원자,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안내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당연히 수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여러 복지 프로그램들을 한곳에서 상담 받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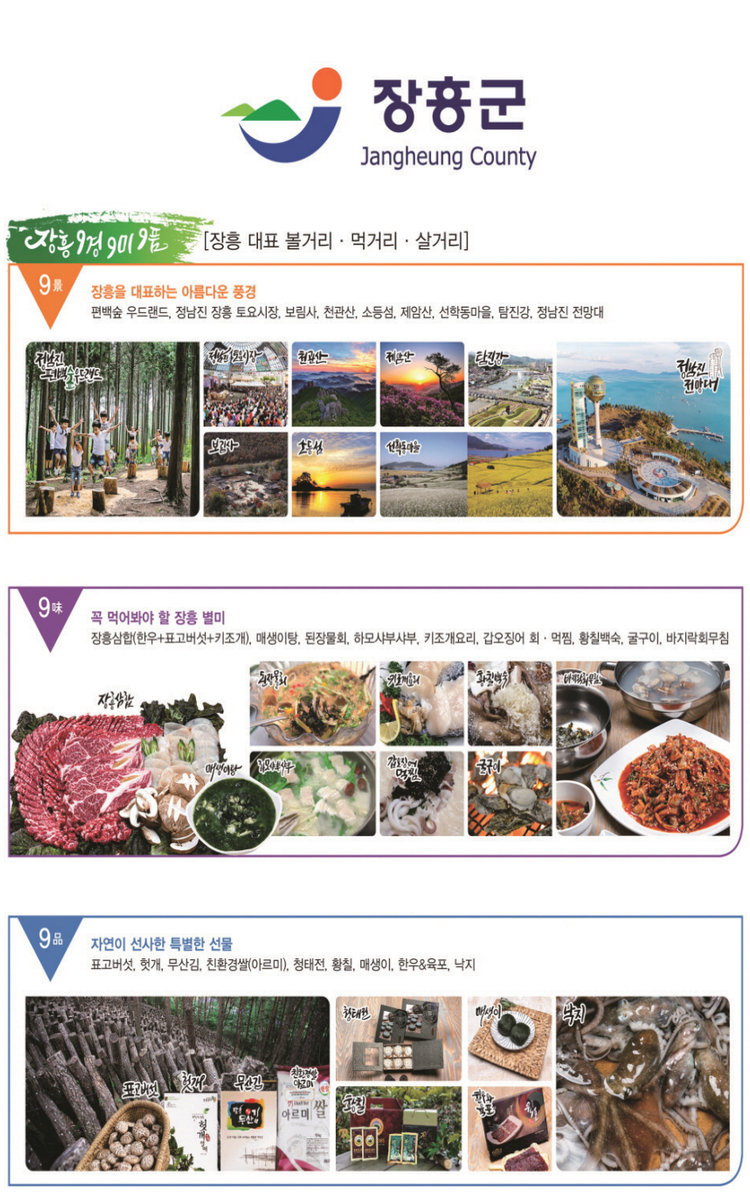
매서운 한파가 들이닥친 데다 난방비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올해 더욱 추운 겨울을 곤욕 속에 견디고 있을 '에너지 빈곤층'을 생각하면 마음까지도 얼어붙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을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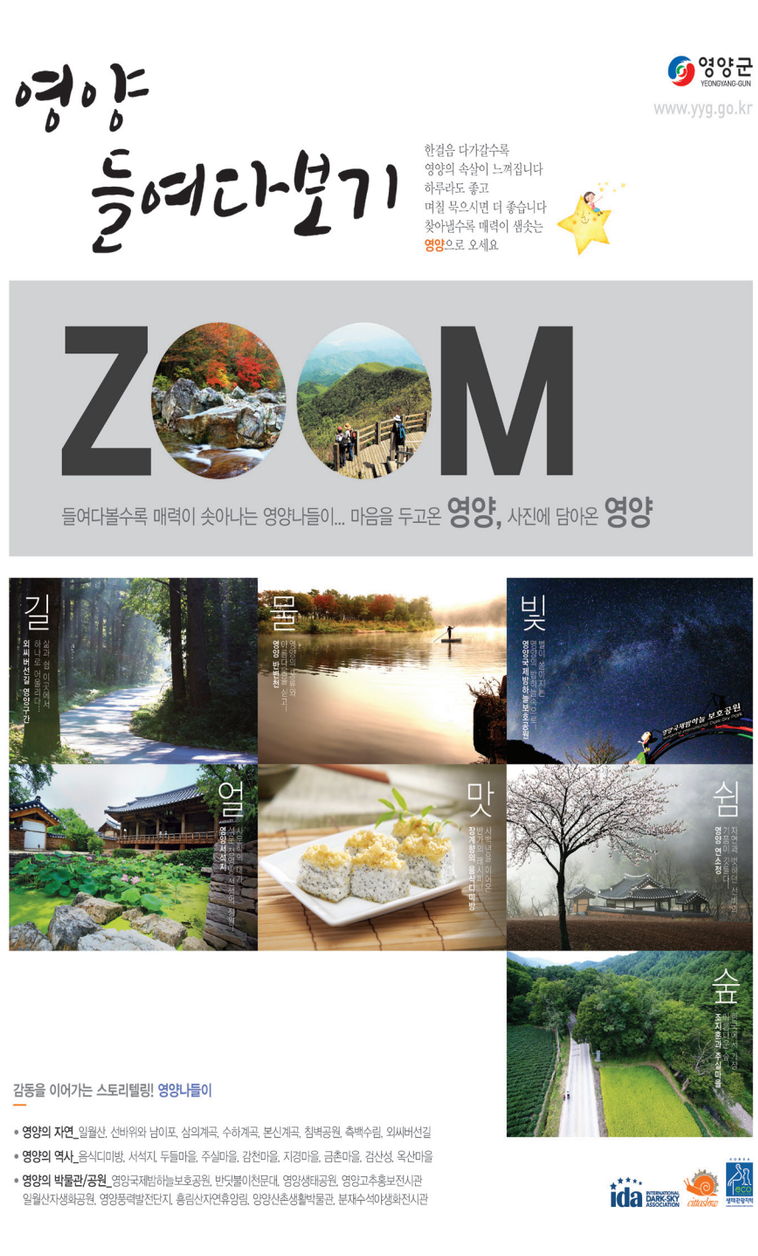
지난해 9월 27일 국회가 뒤늦게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엔 추가로 간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가 국회로 예산안을 넘긴 지난해 9월 초를 넘겨서 법 개정이 이뤄진 탓에, 당장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쉬운 대목이다. 정책은 정확한 자료와 면밀한 데이터로부터 나온다. 결단코 통계조차 없거나 주먹구구식 실태조사에서는 양질의 고품질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일찍이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올바른 정책은 정확하고 면밀한 실태조사에서 출발함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전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영양군 YEONGYANG-GUN

우리 모두의 고향 **영양**, 함께 살려봅시다

10만원 기부하시면

10만원+3만원 돌려드려요!

(세액공제) (답례품)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답례품 : 기부액의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등

♥ 보람이 함께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과 보호,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거주지를 넘어 서로서로 돕는 효과로 전국적인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액 : 연 500만원 한도(개인만 가능, 법인불가)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

• 문의 :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20~3)**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